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간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인도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의 힘을 덧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좇아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26)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84호 2012년 5월 19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성령강림절, 지상 교회 탄생일

부활절 후 50일째 올 5월 27일...하나님의 구속사 증거

성령강림절(Pentecost)은 오순절 날 주님의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신약 교회 위에 처음이자 영원히 임재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행1:4, 5 : 2:1-4). 기독교에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가장 큰 절기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오순절 성령강림은 대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전체 구속사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다.

창조 당시 에덴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은 직접적이고도 온전한 교제를 나눴지만 인간이 선악과 연약을 어기고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 제사로 인간의 죄 값을 치르게 하셨다. 이후 예수 십자가의 수난으로 이어지는 그 구속사역이 성취되고 예수 부활 승천 후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보호 인도할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예언한 말씀대로 제 3위 하나님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는 의인이 되어 그 안에 성령을 모실 수가 있다.

성령강림절의 시기는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이 큰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 강림을 오순절에 일어난 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행 2:1-4).

오순절은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 절기 중의 하나로 일종의 추수 감사절인데, 이 날은 무교절 기간 중의 안식일 다음날, 곧 주일이었던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 따라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은 교회력으로 초실절에 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강림 사건으로 지상의 교회가 시작됐다.

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부활절 후 '제 7주일'로 올해는 5월 27일이 된다.

유월절 어린양으로 만민을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던 그리스도의 부활후 50일째 되는 날, 즉 추수한 곡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의 첫 열매가 탄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 강림절은 이 지상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오순절이 오늘날 말하는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예수님 승천 후의 일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 자신의 승천 후에 오실 성령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다(요14:16-24; 16:1-15).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명하기도 하셨는데(요20:22), 이는 성령 강림의 역

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 오늘날의 성령 강림절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각날의 방언을 하게 됐고, 이들의 복음 증거로 인해 3천명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행 2:37-41).

이처럼 성령의 오심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그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됨으로 교회를 태동케 하는 계기가 됐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전통 절기로 비록 성령 강림절과 관계된 풍습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이때 추수한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레23:15-21). 또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중세에는 이날을 기독교가 실제적으로 탄생한 날로 보고 이를 축하하는 오순절 철야제를 베풀었다. 성령 강림을 기념하기 위한 많은 행사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성령을 상징하는 붉은 예복입기, 성령임재 시 들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연상시키는 나팔 불기,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 날리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기 위한 철야 기도회나 성령체험 간증, 세례식 등이 교회마다 행해지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대선 겨냥 오바마 동성결혼 찬성발언

2면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황의영 목사(SBM 대표)

7면



특별기고
기존 '한글개역성경' 그대로...

1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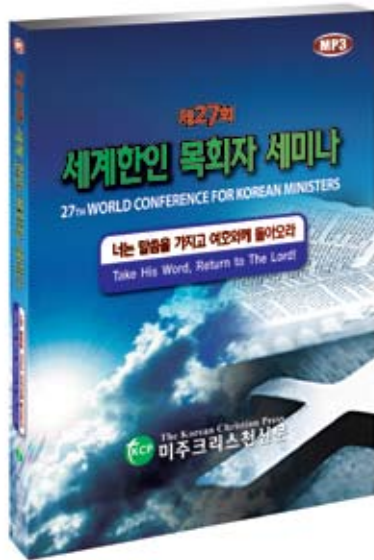


해피 라이프 (2)
석은옥(고 강영우 박사 부인)

14면

사 고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 금란교회에서 개최한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9편 전체가 2장의 CD(MP3)로 나왔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5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교회부흥과 땅끝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6강의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의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총 소요시간 24시간. 2개의 CD로 묶어 가격이 20달러.

강사는 김홍도, 소강식, 권태진, 황의영, 천성덕, 김기원, 조일래, 송용걸, 이영섭, 이정현, 김승욱, 홍민기, 조일구, 김규동, 송규식 목사와 본지 발행인 장영춘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 있다.

또 제 26회 목회자세미나와 평신도세미나 CD 2벌도 함께 발매한다. 27회와 함께 총 4장의 CD를 합쳐 30달러에 판매 한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20달러(제 27회 목회자세미나)
30달러(27회 & 26회(평신도 포함) 우송료 별도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rofessor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MA Courses (석사과정)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본교 소개 및 특전

- 74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학점: 36학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여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시론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지난 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미 미국 각 주에서 이 문제로 대결국면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 국민의 50%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48%는 반대하여 팽팽한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아마도 대통령은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 같다. 이쯤에서 동성애를 지지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극소수에서 시작된 동성애 문제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더니 이제에는 급기야 청교도신앙에서 시작된 미합중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지지를 표명하는 사태까지 오고야 말았다. 이제 동성애의 문제는 일반상식을 가진 자들에게도 부조화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의 기본질서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심각한 공격과 핍박의 문제가 되고 말았다.

얼마 전 가까운 친구 중 하나가 미국의 중부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의 청빙건에 대해 이력서를 내고 심사를 치렀다. 교회에서는 친구 목사를 마음에 들어 모시기로 정하였는데 노회의 심사와정인 최종 면접과정에서 “동성결혼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친구는 그 노회가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외면할 수 없어서 “성경은 동성결혼에 대해 죄악이라고 한다고 믿는다”고 평소의 소신을 따라 대답을 하였다. 그 결과 청빙은 취소되었고 심사위원 중의 한 한인 목사는 “왜 그렇게 목사가 편협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냐?”고 불평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무랐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 이렇게 영향력은 쇠퇴하고 교회마저 병들어 버린 현실을 깊이 회개해야 할 것이다. 교회들이 건강하다면 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성경적인 주장을 세상에 범람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지는 것도 아니며 동성애만이 심각한 죄는 아니라는 사실도 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유전적 요인, 과학적 근거가 너무도 불합리하다는 사실에 덧붙여 동성애의 공개적 허용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며, 나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라는 시각에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의 죄 역시 성장과정에서 혹은 역기능 가정 속에서 때로는 그릇된 성문화의 범람으로 인해 일어난 사회적, 영적 돌연변이임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끝없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길을 향해 치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들에 대해 깊이 회개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동성애라는 죄에 빠진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교회가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오월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 병든 가정,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가 동성애와 같은 심각한 질병, 엄청난 죄를 잉태하게 된 것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이 필요하듯이 오늘의 가정도 오늘의 결혼문제도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동성애 문제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필요로 함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시대의 문제를 보아야 할 때이다.

대선 겨냥 오바마 동성결혼 찬성발언

미언론, 민주당 속내에 맞서는 공화당 입장 보도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결혼을 지지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 미국사회에서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감자인 동성애란 화두가 다시 미국사회를 장식하고 있다. 오바마의 발언으로 정치권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 ‘역풍의 위험을 무릅쓴 소신 발언’ 등의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동성결혼에 대해 10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찬성을,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독일 정부도 오바마를 지지하고 나서는 등 파장은 해외로까지 번졌다. 동성애자인 쿠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오바마의 입장에 대해 “용기있는 결음”이라면서 “나는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독일 정

부의 이름으로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흑인들 중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등 오바마 지지층이 둘로 갈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지난해 WP 여론조사에 따르면, 흑인 중 동성결혼 찬성은 42%, 반대는 55%였다. 오바마의 신앙 ‘멘토’인 플로리다의 복음주의 목사 조엘 헌터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 지지 발표 직후 내게 전화를 걸어와 양해를 구했지만 나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신앙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득을 보는 만큼 타격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흑인들은 오바마에게 몰표를 던질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국정운영실망 등 돌렸던 진보지지층 다시 잡을 기회

오바마는 당초 14일 ‘동성결혼 찬성’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 6일 방송인 터뷰에서 동성결혼 찬성 언급을 하며 선수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서둘러 입장을 표명했다고 CBS 방송이 보도했다. 실제 오바마는 이날 ABC방송에 “전당대회 전에 동성결혼 찬성 입장을 밝히기로 이미 결정했었다”면서 “바이든이 ‘충성이 울리기 전에 출발하는’ 경솔한 행동을 했지만, 화가 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난처한 입장에 처한 바이든은 이에 대해 오바마에게 사과했으며, 오바마는 바이든의 발언에 사심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백악관 소식통은 전했다.



결혼 합법화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 천명에 따라 올 여름 전당대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당 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대통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 강령에도 이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9월 초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스캐롤라이나는 8일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스윙 스테이트’인 이곳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강령을 채택하는 것은 이

보수우파 기독교-복음주의 연대로 전면적 문화전쟁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가 앞으로 6년 달이나 남은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불구하고, 바이든 부통령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까지 서둘러 동성애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배경에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민주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동성결혼을 지지하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동성 결혼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 대선 후보 당시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최근 18개월 동안 동성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을 뿐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9월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수락

할 때 동성결혼 합법화를 당의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실제로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의장인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지난주 동성결혼을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성결혼 옹호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에 찬성해도 정치적으로 잃을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WSJ와 NBC뉴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동성결혼 찬성 비율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직후의 40%에서 49%로 늘어났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블루칼라(노동자)와 아프리카인(흑인)의 동성결혼 지지율은 대폭 증가했다. 노동자 계층의

지지율은 20% 포인트 늘어난 49%에 달했고 흑인의 지지율은 32%에서 50%로 증가했다.

민주당원의 동성결혼 지지율 역시 3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어난 67%에 달했으며 히스패닉계와 18-34세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10일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

문제를 놓고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도 이날 주레브리핑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민주당이 입을 수 있는 선거 역풍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8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8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서우원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4.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대선 겨냥 오바마 동성결혼 찬성발언

〈2면에서 계속〉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이 대선 앞둔 시점이라서 정치 공학적 분석이 등장하고 있다. 미 언론은 이번 동성애 옹호 발언으로 인해 그간 오바마의 국정 운영에 실망해 등 돌렸던 진보적 지지층의 눈길을 다시 잡아줄 기회를 얻었다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서 2008년 대선 때 오바마 진영을 탈퇴했던 “변화와 희망”의 열망을 재현하기

따라서 비교적 중도 노선으로 공화당 경선에 나섰던 롬니 후보는 가장 강경한 노선에서 동성결혼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 보수 복음주의의 상징적인 존재인 빌리 그래함 목사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성결혼 반대에 복음주의 진영이 연대와 일치를 통해 맞서 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지난 대선부터 막강한 네트워크와 미디어

것이다. 여기에 전문학적인 선거자금에 염두에 둔 민주당 진영은 동성애자들의 조직과 자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표를 의식한 연방정부와 주의회의 정치적 행보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한 불확실성만 높아지고 있다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 회생에 대한 공약이 동성결혼으로 인해 희석되

는 이름으로 결혼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 간의 결혼을 사회적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문화적 코드이기 이를 인정한다면 미국사회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약속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성경적인 정의도 사회적 변화나 문화의 대세이기에 부정된다면

‘결혼 정의’는 하나님만, 인간이 만들 수 없어 기독교인들 연합해 제2의 바벨탑 비극 막아야

위한 오바마의 정치적 승부수라는 해석이다. 경제문제로 궁지에 몰린 오바마가 동성애라는 뜨거운 이슈로 눈길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큰 동력이다. 지난 4월 25일 발표된 퓨포럼의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조사 결과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전문 설문조사 기관인 퓨포럼(the Pew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에 따르면 동성결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60%로 찬성한다는 의견의 31%를 두 배 가까이 앞섰다. 하지만 2012년에는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비율이 47%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43%) 앞섰다. 8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영과 복음주의 진영의 연대로 전면적인 문화 전쟁을 치를 것을 두려하고 있다. 오바마의 발언은 그 사회적 변화의 결과물이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발언의 배경이다. 이런 대중의 변화가 공화당의 전유물이었던 동성애라는 이슈를 민주당 대선후보가 꺼내들게 만들

결론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동성결혼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 독자적인 권리로 대치시키고 있는 전략으로, 연방결혼수호법(DOMA)의 공공연한 폐기를 확실히 하고 있다.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구체적으로 그 입장을 천명하기보다는 주 정부에 따라서 결혼을 제정의 하라는 구상을 행정 명령으로 몰아가고 있다.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동성 간의 일치도 인권이라

동성애보다도 더 무서운 일탈 행위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 질서들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부터 유래된다. 결국 “인간은 결혼을 다시 만들거나 정의해서는 안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존 파이퍼 목사의 경고는 동성결혼이 인정되고나서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애완동물과도 결혼을 하겠다고, 그것도 바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하게 되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미국인들은 올 11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와 말씀 아니 인간과 하나님간의 싸움이 대통령 선거에서 동성결혼으로 벌어지게 된다. 또 다른 바벨탑의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크리스천들 모두가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순간이다!

성령강림절, 지상 교회 탄생일

〈1면에서 계속〉
또 성령강림의 상징물로는 성령의 주요 상징으로는 비와 이슬(시72:6), 순결을 상징하는 비둘기(마3:16), 생수(요7:38, 39), 바람(요3:8), 타오르는 불(행2:3), 하나님의 일곱 영을 상징하는 일곱 개의 등불(계4:5), 기름(요일2:27) 등이 있다. 오늘날에도 불은 성도들의 뜨거운 열성과 교회의 살아

있는 활동들을 상징하기도 하며, 등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상징한다고 여기기도 한다.

성령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많은 사역을 하신다.

성령은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고(요3:3, 5), 가르치시고(눅12:12; 요14:26), 하나님의 율

례를 행하게 하시며(렐36:27), 권능을 주시고(미3:8), 거룩하게 하신다(롬15:16). 또한 신령한 것을 분별케 하시고(고전2:13; 요4:1-6), 성도 안에 거하시며(요14:17) 성도임을 증거하시며(눅8:9,16; 히10:15),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갈5:22, 23)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요16:13).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성령받기를 힘쓰는 것은 당연하며 성령 받은 자는 복을 전파(행1:8), 사단을 물리침(행3:6), 기도(요14:13, 14), 다른 이들

을 섬김(막9:37),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용서(요15:12), 교회의 덕을 세움(고전14:5), 하나님께 대한 감사(엡5:20), 하나님을 찬양함(골3:16), 찬미의 제사(히13:15), 경건한 생활(딤후6:11) 등을 하게 된다.

2012년 성령강림절을 맞아 모든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이 주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

〈편집부〉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믿음의 그릇에 따라 넘치게 채워지는 은혜!

시편 72편

본문 17절에서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시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그 주인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떠한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복을, 은혜를, 사랑을, 축복할 수 없는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대답은 그런 복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이 세상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자녀들에게 찾아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혜로 부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는 삶을 누리

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 피신해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 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요21:15).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달려오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 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 없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항상 충만하게 받으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면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넓고 따뜻한지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본인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힘주시고, 소성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용기 주셔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네게 나의 평강을 주노니 내 평안을 받으라!’고 하십니다(요20:19, 14:27).

본문 7절에서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이 흥왕한다 했습니다.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함과 같이 풍성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왕성케 하심을 믿읍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으로 스며들어서 그 땅을 부드럽게 해주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땅을 적시는 소나비와 같이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 나오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상처 난 내 심령 구석구석에 파고 들어오셔서 굳어져 있고 상처 나고 괴로워하는 병든 마음들을 부드럽게 치료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환경까지 파고 들어오셔서 주의 자녀들의 삶을 평강하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읍시다. 흥해 바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길이 열림과 같이 우리들의 환경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려시는 그 은혜, 치료해주시고 소성시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누립시다. 염려하는 대신에, 걱정하는 대신에 그 은혜를 누립시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그 은혜, 새벽 잠 깨우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그 능력! 감사하지요. 내 몸은 땅에 있지만 내 영혼은 아버지 보좌 앞까지도 올라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 믿음으로 성령의 기운을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지요. 아버지는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을 채워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도 여전히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계속하여 받으라!” 하십니다. 아멘.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선교회

Pgm

중·장기선교사 훈련

- **일시:** : 2012년 7월 9일(월)~21일(토)
- **장소:** 멕시코 칸쿤 GMA 세광국제선교센터
- **대상:** 장기 선교사 후보생, 비거주 선교사 후보생, 선교사로 재훈련을 원하시는 분
- **강사:** 양춘길목사, 정인수목사, 호성기목사 외 미주 한인교회 지도자 김종관선교사, 이규종선교사, 조길순선교사 외 장기 선교사
- **접수마감:** 2012년 6월 16일(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함께 동참할

선교의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동역자들을 찾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 타문화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선교에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교 공동체 훈련을 실시합니다. PGM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훈 련 비: \$300/개인 (항공료 자부담) \$500/부부 (항공료 자부담)

훈련내용: 선교훈련 전문가가 선교지 내에서 실시하는 On-site 훈련으로 교육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

Spiritual Formation of Missionaries
Survival Skills, Individual Intercultural Adjustment
Cross Cultural Tools for Missionary Work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ies
Evangelism Practice
Fundraising Skills & Financial Reports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PGM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admin@pgmusa.org
전 화: (610)397-0484

목회칼럼



한평우 목사 | (로마한인교회)

참게를 만난 인연

아내와 함께 비토리아(Vittoria) 시장에 갔다. 비토리아 시장은 영화로도 소개된 로마의 중앙역인 테르미니(Termini) 근처에 있다. 시장은 아침 일찍부터 열고 오후 1

시경 조금 넘어 문을 닫는다. 대체적으로 이곳은 가격이 싸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힘든 노동을 필요로 하기에 이태리 사람들이 하나둘 부지런한 아

시아인들에게 넘겨주어 지금은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그 중에는 한국말을 잘하는 동남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참으로 우연히 생선을 파는 노점 한쪽에 그물로 싸여있는 우리의 바다 게와 민물 게를 만나게 되었다. 그 반가움이란 외국에서 친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다. 사실 로마는 웬만한 것은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던 게만큼은 이제껏 볼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예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구약에서 금하는 게를 먹지 않아서인지도 모른다. 이런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게 하는 경험 이 있다. 우리가 빌려 썼던 스코틀랜드장로교회의 총회의 배려도 80년대에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 때 아오나 섬에 자리한 기도원에 한 주간 동 안 참석했다. 그런데 낮에는 시간 이 있어서 작은 섬 주변을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근처 바닷가에 나가 보았다. 그런데 바다에는 우리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미역들이 흐드러져 있었다. 이 사람들은 미역을 먹지 않으니 미역들이 맘껏 자 유를 향유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호기심이 일어 바닷가랑이를 걷어 부치고 바다에 들어갔다. 그리 깊지 않은 곳이었기에. 어렸을 때 냇가에서 맨손으로 붕어를 잡았던 기억이 있기에 울창하게 뻗어있는 미역 사이를 두 손으로 더듬었더니 뭔가 감이 느껴졌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 꺼냈더니 손바닥만 한 게가 아닌가! 누르스름한 게로, 등쪽은 넓적한데 발은 균형이 맞지 않게 작아 굵꽂게 보이는 게였다. 그런데 바다 수초 사이로 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

서 기도원 부엌에 가서 양동이를 빌려와 열심히 잡았더니 반 정도가 찼다. 그것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주방으로 가서 찌달라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먹지도 않았고 나 역시 먹어보니 맛도 없어 그냥 버리고 말았던 경험이다. 그런데 이번에 본 게는 한국 게와 똑같았다. 파는 사람에게 어디서 잡은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리스 앞바다에서 잡는다고 한다. 꽃게는 모두 살아있었다. 더더구나 민물게 역시 살아있었고.... 한국에서도 드문 참게가 로마에 있다니, 아마도 전에는 로마사람들이 먹지 않으니 잡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아시아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런 게도 잡아 파는가 보다. 어릴 때 논에서 보았던 게가 신기하기만 했다. 동질감을 느낀다는 것은 쉽게 천해지는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즉시 나이와 출생지 또는 다닌 학교를 묻는다. 그 중에 하나만 맞아도 십년지기처럼 말을 놓게 되고.... 이게 우리의 문화다. 이런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등이 동그스름하고 앞발에 털이 있는 참게는 보면 불수록 신기하고 마치고 수십 년 만에 고향친구를 로마의 시장에서 만난 것 같다. 인연이라, 삼십년 만에 만난 인연이라. 사랑스런 표정으로 참게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맺어진 인연은 얼마나 질기고 값진 영원한 인연인가! 이 인연을 소중하게 키워가자겠다는 생각이 분수처럼 저 깊은 마음 밑자락에서 솟구친다.

푸/ 른/ 초/ 장

이정수 목사
(새힘교회)



지중해 수면보다 200m가량 낮은 갈릴리바다는 더운 공기와 찬 공기의 마찰로 인해 자주 큰 풍랑이 일어난다. 본문 24절에는 ‘큰 놀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다의 큰 지진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우리 인생은 혹시 갈릴리 바다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론 큰 풍랑을 만나 삶의 위기를 느낀 적은 없습니까? 본문성경은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첫째 풍랑 속에서도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배워야합니다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24절.) 예수님이 광풍 속에서도 편히 주무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절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사41:10).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신학자 벵겔은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 없는 것은 동의어다”고 말합니다. 시121편에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시29: 11).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투옥

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있기 전 날 밤 그의 사랑하는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은 형과 마지막 밤을 함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나는 평상시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죽음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동생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진 이후 이제껏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얻고 담담한 마음으로 순교의 잔을 마시기로 마음을 굳혔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승리의 요인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영적 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승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을 의뢰하면 의뢰할수록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능력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굳게 서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다 평안했습니다. 사자굴이라는 풍랑을 만난 다니엘을 보세요. 풀무불의 풍랑을 만난 사도막 메삭 아벳느고, 돌 세례 받은 스테판, 홍해라는 풍랑 앞에 선 모세, 그들은 죽음이라는 큰 풍랑의 위기 속에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풍랑 속에서도 편히 주무시는 주님의 평안을 배워 세상에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됩시다.

둘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신앙을 배웁시다.

마8:23-27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25절). 성경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시50:15)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와 싸우지 말고 기도로 예수님과 싸웁시다. 성경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막9:29)고 말씀합니다. 臨死呼天(임사호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하늘에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 야곱은 에서라는 풍랑 앞에 완도빠가 부러지도록 기도할 때 그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큰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풍랑과 싸우지 마시고 능력의 예수님을 깨우세요. 예수님만 깨우면 풍랑이 물러가고 평안의 은혜가 임합니다.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시34:17).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렘33:3)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큰 힘

지구의 중력만큼이나 큰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셋째 풍랑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배웁시다.

(26)“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고전4:20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 받으면 질병이 떠납니다.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가난이 사라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행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은 꼭 받아야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눅4:6).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11:12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는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고백과 찬송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위대한 설교가 어디에서 나오며 은혜로운 간증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기적과 축복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막9:29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 그 분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보셨습니까? 땀 흘려 기도해보셨습니까? 기도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합니다. 찬427장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힘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담대해집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이기며 살아가집니다. 능력있는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 받으면 아이라도 귀신을 물리치고 질병을 낫게 합니다. 여러분도 풍랑을 잔잔케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도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가정위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살람.

밥(BaB, Background of Bible) 하는

장재일목사의명쾌한성경해석책이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바레복음

장재일목사
504면 / 18,000원 (1~13월)
682면 / 25,000원 (14~23월)
신구판임용

복음서를이비록헐라아로기록되었지만제자와동장인물들은대부분히브리사람들이다. 그러므로복음서를해석하기위해서는당시히브리인들의관점과사고방식을이해하는것이대단히중요하다. 본서는성경시대히브리인들의관점과사고방식을바탕으로마태복음의깊이있는해석하고있다. 독자들에게탁월하고풍부한해석적안목을제공해줄것이다.

http://www.israelecademy.com
6월부터이스라엘밥아카데미본격강의!

성경의절기를잘알고싶다면그레경부터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본서는성경에나타나있지만알고있는기공음, 이스라엘의기후, 농사적상황, 성경의제자의식물까지도알비문헌을토대로자세하게기술해놓았다. 성경의절기에대하여해결되지않은궁금증이있었다면이책에서시원하고명쾌한해답을얻을수있을것이다.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장재일목사

- 유신신대학총장
- 예루살렘대학성경지리역사학과석사
- 현성지대학PhD 과정
- 현세이원교회집회목사
- 현한국어스라엘연구학회연구위원
- 현이스라엘집사카데미대표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2012

서울국제도서전

6. 20. - 24. COEX A/B홀

www.sibf.or.kr

● 한글언더넷주소 출판, 출판유통사 ● 홈페이지 www.gurran.co.kr ● 주소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184-3 ● 전화 022747-1004 ● 출판유통사

교육칼럼

다음세대 선교를 위한 전략 2

다음세대 교회정착과 부흥을 위하여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 지는 곧 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만한 사람이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앞장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외쳐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참으로 두려울 뿐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소하는 언행을 하고 있는데 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지 말합니다. 우리 이민교회 목회자들은 소수민족으로서 힘도 없고 언어적으로도 충분한 표현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미국교회 목사들은 왜 말을 못하고 있는지 “동성애는 죄다”라고 바르게 외치지 못하는지, 왜 잠자코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하도 답답하여 제가 미국 목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동성결혼을 반대하지 않고 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들의 대답은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자기 교단의 원칙이라는 공색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정치적인 문제만인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가? 그랬더니 그제가 미국교회 교인들의 상당수가 동성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인들

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부모세대 즉 장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사역자들을 양성하여 연구하게 하고 커리큘럼 Curriculum과 교육방법Teaching Method를 개발해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 면에서도 자녀들의 교육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보다 넓은 공간과 친환경적 시설

고 형태와 필요를 알아야 하고 거기에 맞는 질문이나 주제를 가지고 학습활동으로 진행해야 효율적인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옛날이야기 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느끼고 생각하고 따르도록 학습활동을 전개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의 스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연령별 급간에 맞는 구체적인 학습지도안을 세우고 학습활동에

라 나오는 들러리 신자가 아니라 교회의 주역이요, 주인으로서 대우 받도록 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불편하면 교회가 곧 바로 불편한 것을 고쳐줍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불편하면 무엇보다 먼저 그 불편한 것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좋은 시설은 어른들이 사용하고 아이들에게 불편한 시설을 사용하게 한다면 언젠가 아이가 성장하여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되면 불편했던 교회를 떠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교회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순 당면한 어른들의 문제에 몰두하다가 잊은 것은 아닌지, 목회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순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지요. 한번 미루면 두 번 미루게 되고 두 번 미루면 멀리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교육부 문제이고 다음세대의 문제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교회가 조금 편안해졌을 때는 우리 아이들은 제 길로 가고 난 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어려운 말을 해야 하겠습니

다. 대체적으로 대형교회는 이만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끼리 다 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세대 문제도 별로 염려가 없다 왜

교육의 성공은 적중률·학습의 주체는 교사가 아닌 학생
자녀는 선교지...연령에 따라 그 세계관의 교육과정 필요

이 자주 떠나는데 그들마저 떠나버릴까 하는 우려에서 교단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정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교단들이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하는 형국이니 교인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리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교단이나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떻게?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그 부모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은 가치관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과 문화 그리고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이 혼탁한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분별력이 없이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고 미국사회도 믿을 수가 없는데 가정에서조차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불행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도 자녀들을 교회에 맡길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

은 물론 교육환경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 신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시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 반드시 어른들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어도 잘만 컸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로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혼탁한 세상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선택이 아주 다양하고 문화적으로 편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 아이들이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

입니다. 교육의 성공은 적중률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그 아이들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잘 모르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에서 학습의 주체는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입니다. 즉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그들의 세계관에 맞는 교육과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관심에 적중하지 않으면 완전히 빗나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고 교사들이 실험을 해 보고 만전을 기해 주일학교를 운영해 가야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쉽게 판단하고 어른들 마음대로 아이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그들과의 관계가 먼저 깨어지고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아이의 취향이 나 의견과 상관없이 부모가 옷을 사서 입히면 아이가 아무 말 없이 그 옷을 입고 다니던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옷을 스스로 선택해야 그 옷을 즐겨 입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생활에서도 모든 결정을 부모들이 다 해버리면 아이들은 그 가정에서 이방인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족이 함께 하는 일들은 자녀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 함께 결정해야 모두가 행복하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의견을 발표하게 하고 좋은 의견을 칭찬해 주고 그 의견을 반영해준다면 아이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창의력도 신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들이 의견을 편하게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단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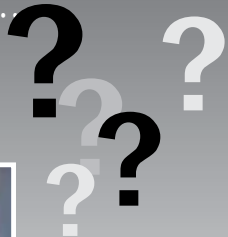
교회에서도 아이들은 부모를 따

나하면 부모를 따라 나오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성장하여 대학에 가고 졸업하면 사라지는데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중형교회는 대형교회로 가기 위한 교세 불리기와 더 큰 교회당 짓기에 열중하다보니 다음세대 문제는 소홀하기 마련이고 소형교회는 교회운영이 어려워 다음세대 문제는 아예 염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세대 문제의 제일 큰 책임은 바로 대형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자만하고 있는 사이에 아이들은 소외되고 무관심으로 인해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 자녀들은 또 하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들은 문화적 언어가 다르고 그들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사이버라는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음세대가 선교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주의 도를 떠나지 않고 우리 부모세대가 세워 온 교회와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이어가도록 그들을 위해 우선순위를 세우고 문화적 세대적 경계를 넘어 선교의 현장으로 받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저는 꿈 많은 20대의 청년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까요?

A: 형제님,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뉴욕 필하모닉의 세계적인 지휘자인 브루노 발터가 갑자기 아파서 지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할 수 없이 부지휘자가 대신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이 젊은 지휘자는 실로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고 청중들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콘서트는 전국에 방영되었고 비평가들은 열광하면서 새로운 천재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습니다. 대타로 나왔다가 스타가 된 이 부지휘자가 바로 20세기의 최고 지휘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레너드 번스타인(Lenord Bernstein)이었습니다.

이 동화와 같은 데뷔스토리는 무슨 교훈을 줍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운이 좋아 성공한 것일까? 아닙니다. 물론 그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의 파도를 잡아타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번스타인이 비상상황에 지휘자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그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날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을 준비하며 기다들었기 때문입니다. 실력을 쌓아 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발휘할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 흥 목사가 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세기의 해군제독 페리는 일본 사무라이들이

미래를 위해 착실히 실력을 준비해야

독실거리는 곳을 현대식 해군전함 몇 대로 간단히 압도해 버렸습니다. 수백 년간 칼싸움만을 해온 일본의 사무라이들을 칼로 제압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총 앞에서는 칼은 꼼짝을 못합니다. 또한 총은 대포 앞에서 맥을 못추고 대포는 미사일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이후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무섭게 서구문명을 받아들여 현대식으로 재무장한 후 2차 세계대전 때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재래식 무기를 무력화하는 핵폭탄 두 방으로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확실한 승리는 실력을 키우되 다른 차원으로 점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2차원으로 그리고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다시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을 교두보로 하여 4차원으로 확확 뛰어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렌디피티(Serendipity)란 말을 들어 보았는지요? 18세기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월폴(Horace Walpole)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 예기치 않은 행운, 또는 우연을 가장한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렌디피티의 순간을 붙잡아 축복의 열매를 맺는 능력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력을 평소에 갖추고 겸손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그 세렌디피티의 순간을 붙잡고 비상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에 실력을 갖추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때가 와도 결코 비상할 수 없습니다. 때를 잘 만나는 것과 그 순간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성공의 비책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님, 그러므로 착실하게 한걸음 한걸음 믿음의 실력과 학문의 실력, 전문성의 실력을 쌓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잘 잡으십시오.

한국 교회에 드리는 말씀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제 96회 총회는
「개역 성경」을 강단용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의 존재가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천년 기독교 역사는 진리 전파와 더불어 진리 수호에 앞장서 왔으며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던 중세 교회를 깨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한 진리의 재발견이요 선포였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입니다(고후 13:8).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습니다(시 60:4). 이것은 명령이요 진리의 일꾼들의 임무입니다. **작금의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계시라는 불변의 진리를 퇴락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축자 영감설을 부정하는 자들의 해석들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켰습니다. **다소 번역의 차이 혹은 표현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오역과 왜곡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한글 개역 성경」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진리 전파와 수호를 위해서 성경 원문의 뜻을 충실하게 살리면서 이 시대 사람들의 신령한 교훈에 전혀 손상이 되지 않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제 96회 총회에서 「한글 개역 성경」을 강단용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총회 산하 모든 지교회들과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역자들이 물려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모토는 지금도 유효한 진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되는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12년 1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이기창 목사
서기 고영기 목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탄의 구룽(GURUNG)



3만5천 이상의 인구로 네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구룽인들은 부탄의 남서쪽의 우거진 숲 속에서 발견됐다. 부탄은 세계에서 유일한 불교 왕국으로 히말라야인의 힘에 눌려 인도와 티베트 사이의 지역(히말라야 지역)에 끼여 살고 있다. 그 곳은 또한 “Druk-Yul” 즉, 천둥 드

래곤의 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구룽인들의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처음에는 티베트로부터 이주해왔고, 네팔에서 흩어져 그 후 일부는 부탄으로 옮겨온 것 같다. 영국령에 의해 지배받는 동안 인도 정부에 의해 통치됐지만 1959년 이후로는 통치가 금지됐다.

구룽인들은 부탄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심한 인종차별을 겪어야 했다. 현재 정부는 사회에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수에 의해 하급 계층의 시민으로 대우받는다. Khas Kura라고 불리는 그들의 언어는 티베트 부르만어에

속한다.

삶의 모습
구룽인들이 흩어져 사는 지역은 경작지가 적다. 하지만 네팔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히말라야 지역 중앙부에서 사는 것을 금지당해 왔다. 이는 구룽인과 네팔인 사이에 깊은 갈등이 되고 있다. 몇몇 구룽 그룹은 산속의 넓은 개간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의 농사꾼들은 나무를 베고 태워서 개간하는 방법(화전법)을 취해 생활하고 있다. 이 개간 방법은 우선 불로 산야를 태워 3, 4년 간 마른 쌀을 재배하고 그 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동일한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구룽마을은 해발 1000-2000미터 되는 고원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공동 부락은 일반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가끔 2내지 3가구들은 그들의 경작지 근처 우

거진 삼림지역에 함께 몰려있다. 그들의 집은 가늘게 짠 대나무 조각들과 짚으로 된 지붕으로 만들어진다.

전통적으로 구룽인의 남자 의상은 보토스(bhotos)라는 조끼와 도티스(dhotis), 허리에 두르는 천인데 그것으로 그들의 가슴에서 무릎까지 둘러 감는다. 일부는 자마스(jamas)-스코틀랜드식 스커트-를 입는다. 여자는 화려한 색상의 페리아(fariyas)-사리(인도여인이 허리와 어깨를 감고 남은 부분으로 머리를 싸는 길고 가벼운 옷)-와 갈렉스(ghaleks)-긴 웃옷-을 블라우스 위에 입는다. 여성들은 또한 코걸이와 귀걸이 같은 장식품을 매우 좋아한다.

축제 의식은 구룽사회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 부르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특히 “로디가(RodiGhar)”라는 곳은 젊은 층이 모여 노래하는 맨

스홀의 일종이다. 구룽인들은 결혼으로 완전한 성인 자격을 부여 받는다. 결혼은 일반적으로 부모들의 상호 동의에 의해 준비되며, 예비 신랑 신부는 보통 어렸을 때 약혼하고 결혼할 때는 신부들에게 금보석 등의 예물이 주어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룽의 기초 가정단위도 변화하고 있다. 가족은 남편, 아내, 아이들이 함께 사는 핵가족으로 시작한다. 그러다가 아들이 결혼하면서 그들의 신부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며 가족은 확대되게 된다. 그렇지만 아들들의 자녀들이 자라매 따라 부모의 집 옆에 자신의 집을 짓고 분가한다.

병의 원인은 악마나 악한 영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있고 “라마(불교 사제)”는 악한 영을 내쫓기 위해 그들의 신앙서적을 읽는다. 장사 관습은 구룽인들의 점성술을 참고해 사체를 점성가에 의해 지시받는 대로 화장하거나 묻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수질오염은 부탄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중의 하나로 시골지역민의 70%는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부탄은 1974년까지 관광사업 부문에서 개방하지 않았지만 매해 관광객수를 제한적으로 허락하고 있다. 그들은 “연약한 문화”로 불리는 군주국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여전히 위성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교권 정부는 외국 종교나 서방 종교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중보기도는 부탄이 복음에 열리도록 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오바마 동성에 지지는 잘못...”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동성에 지지 발언은 분명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폭동 20주년을 맞아 미국 흑인 목회자 대표단(단장 테런스 그리피스 목사)과 함께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대통령 종교자문 케빈 존슨(38·미국 필라델피아 브라이트호프침례교회) 목사는 지난 10일 서울 대치동 이비스앰버서더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에 커플이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내용을 호텔로비에 있는 TV를 통해 본 뒤 격앙된 모습으로 말했다.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에 관련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말하기에 동성에 제도를 서포트(지지)하겠구나’는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동성 커플결혼의 합법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를 나타내다니 그저 놀랄 뿐입니다.”

1910년 설립된 필라델피아 최대 흑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존슨 목사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종교자문을 8년 동안 맡고 있다. 오바마 선거 캠프를 지원한 것은 물론, 흑인 사회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최근엔 논쟁 중인 전(全) 국민 의료보험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명성교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오산리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 광림교회, 주빌리교회,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등을 방문했다. 특히 그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 예배에서 설교를 했으며, 한국교회의 열정과 뜨거운 열정을 표했다.

존슨 목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애커플 결혼 지

뉴질랜드 총리 “동성결혼 반대하지 않는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동성 결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키 총리는 10일 한 언론으로부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애자들도 결혼이 허용돼야한다고 말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동성 결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고 있다.

이는 키 총리의 종전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그는 이전에는 뉴질랜드에는 동성 결혼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시민주권연합 총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8년에는 동성애자들의 결함을 합법화한 시민 결합보다 더 나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고, 지난 2월 동성애자 축제에서도 시민 결합은 대단한 승리로 동성 결혼에 대한 움직임이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4년 뉴질랜드 국회에서 시민 결합 법안이 처리될 때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것이 자신의 개인 견해라기보다 지역구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노동당의 데이비드 시아러 대표도 원칙적으로 결혼 평등권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공식적인 지지를 보내기에 앞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40%가 동성 결혼에 찬성하고 그보다 많은 5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된 조사에서는 동성 결혼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0%로 크게 늘어난 반면 반대자들은 34%로 줄어들었다.

미국인 8명 중 1명은 외국출생자

미국 내 외국출생자 인구가 2010년 기준으로 8명 중 1명 꼴에 달해 192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미 인구조사국이 10일 발표했다.

인구조사국이 3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 텍사스 주 등이 외국출생자 최대 밀집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는 미국 내 외국출생자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하고 있다. 또 2005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외국출생자들은 이민자들의 첫 정착지로 꼽히던 동부·서부 해안지역에서 벗어난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출생자들이 최근 가장 많이 간 지역은 루이지애나 주와 웨스트버지니아 주, 인디애나 주, 노스다코타 주, 사우스다코타 주, 아이오와 주, 와이오밍 주로 집계됐다. 앨라배마 주와 노스다코타 주, 와이오밍 주의 외국출생자 중 3분의1은 2005년 이후 입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출생자는 5명 중 4명 이상이 2005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에는 이민자 수가 소폭 감소해 2005년 이후 이민 온 700만 명 중 300만 명에 그쳤다.

주요 출신지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이동했다. 2005년 이전에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민자 비율이 외국출생자의 54%를 차지했으나 2008년 이후에는 40.7%로 감소했다. 반면 아시아 출신 이민자 비율은 2005년 이전 26.9%에서 2008년 40.3%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멕시코 출신 이민자가 미국 내 외국출생자 인구의 30%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과 인도인은 각각 5.4%, 4.5%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출생자들은 미국 내 출생자보다 과학과 엔지니어 학위를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분야 학위를 가진 외국출생자 420만 명 중 60%는 중국 출신이었다. 컴퓨터와 수학, 통계 학위를 가진 외국출생자 중 3분의 2 또한 아시아 출신이었다. 이 중 인도와 중국 출신은 각각 24%와 14%를 차지했다.

아르헨티나, ‘존엄사 논란’ 가열 조짐

아르헨티나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판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은 전날 존엄사 허용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5, 반대 0,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찬성 55표, 반대 0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환자 자신과 직계 가족, 법적 대리인은 환자의 승인 없이도 수술, 영양 및 수액 공급, 소생술과 생명유지 장치 등 인위적인 연명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된다. 남미 국가 중에는 아르헨티나에 앞서 콜롬비아가 이미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존엄사 허용 법안은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존엄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면 결국에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보수 정당인 공화주의제안당(PRO) 소속 상원의원은 존엄사 허용이 죽음을 앞당겨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상원의원은 영양과 수액 공급 중단이 환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가는 카밀라(3·여)의 사례에서 존엄사 허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했다. 카밀라는 출생 당시 산소 공급 부족으로 뇌에 손상을 입었으며, 영구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카밀라의 어머니는 지난해 존엄사를 살인 행위로 규정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고, 이후 정치권과 의학계에서 논란이 가열됐다.

사고로 2010년부터 뇌사 상태에 빠진 한 그룹의 보컬리스트 구스타보 세라티의 경우는 정반대다. 세라티의 어머니는 전날 의회를 통과한 존엄사 허용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황 의 영 목사 | (SBM 대표)

말씀을 동사화(動詞化)하라(2)

4)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
말씀은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깨닫고 알기만 하면 안 된다. 만일 은혜만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정상일 수가 없다. 그런데 실제 행동은 말씀과 거리가 매우 멀다.

5)은혜를 많이 받는데 태도는 이중성을 보인다.
형식은 잘 갖추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이 쏙 빠져 있다. 예수님께 크게 책망 받은 바리새인들처럼 속(안)과 겉(밖)이 다르다.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은혜 따로 자신의 사고 방식 따로, 말씀 따로 판단 따로,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찬송과 감사 따로 감정과 말씨 따로, 이렇게 이원화현상을 나타낸다.
이런 모습을 근본적으로 탈피하고 말씀과 삶을 일치시켜야만 한다. 온전히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행18:5) 살았듯이 말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여간해서는 말씀에 사로잡

히지 않는데 있다. 말씀을 믿으면 서로 미꾸라지처럼 자주 말씀을 벗어나기 잘한다.

6)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한다.
말씀에 온전히 지배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말씀을 지배하고 있다. 유익한 말씀들을 따로 골라서 믿는다. 전적으로 말씀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우리가(사람이) 말씀을 사로잡고 있느냐, 말씀이 나를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오로지 모든 말씀을 무조건 순종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온전히 말씀에 의해 움

직일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깨우치고 민첩하게 적용하는 재치와 용기는 또 어떻게 발휘하는가?

4. 말씀의 표현과 강조점이 다양하다
먼저 성경에 말씀을 서술한 형식을 살펴보자. “말” 또는 “말씀”이란 용어의 어법과 표현양식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명사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동사형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말씀을 단지 명사로만 대하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동사로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표현양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보자. “여호와와 말이니라”는 등의 “말”과 “말씀”을 명사로 서술한 단어가 ‘emer’, ‘dabar’, ‘qol’ 등 각각 9가지 다른 형태의 용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동사형으로도 “말”이라는 용어가 ‘piel’, ‘hagah’ 등등 19가지 다른 어휘로 표현되어 있다. “말씀”이라고 번역된 경우도 ‘amar’, ‘kalah’ 등 모두 9가지 색다른 용어로 기록되어 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말씀”이 명사로 ‘logos’, ‘kerugma’, ‘rhema’ 등 모두 5가지 종류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동사의 경우 “말”로 번역된 곳이 무려 22가지나 된다. 또한 “말씀”으로 ‘laleo’, ‘lego’ 등 7가지 다른 어법으로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좋은 약속”(왕상 8:56)이라는 형용사적인 표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이 강조되는 초점과 방식에 따라 여러 형태의 어휘와 어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과 계시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

르 394회)와 로고스 그 자체를 밝히고 있다. 참된 생명의 말씀을 일컫는다. 온전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드러낸다. 또한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말씀의 계시적 의미와 핵심이 무엇임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사의 측면에서 말씀의 뜻을 폭넓게 익힐 필요가 있다.
명사로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주권)과 섭리를 머리(지성이나 이성)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머리로 깨닫거나 믿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면 문제가 있다. 단지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간직하기 때문이다.
3)동사로서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라
“말” 또는 “말씀”으로 번역된 본문을 보면 명사형으로 기록된 내용보다는 동사형으로 표현된 내용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이 동사로서 가슴에 뜨겁게 와 닿아야 한다. 손과 발이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 행동(의지력)이 따라야만 한다. 마치 스위치를 올리면 곧 불이 켜지듯 말이다. 동사는

게 하자
우리는 명사로서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큰 은혜를 받는다. 아울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질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 체계를 이루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알기만 하는데 문제가 있다. 말씀은 믿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시하고 삶을 통해 열매를 맺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이론(명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동사화 하는 것이다. 내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도록 말이다. 말씀이 내 속에서 뜨겁게 역사되기 시작하면 마치 자동차에 연료를 잔뜩 넣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힘차게 앞으로 달릴 수 있는 마력(horse power)이 작동함과 같다.
아무췌록 동사로서의 말씀의 능력과 효력을 분명히 체득하자.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삶이 말씀에 더 많이 지배를 받게 된다.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성경은 강조 초점과 방식따라 여러 형태 어휘 어법으로 기록 명사로서의 말씀 본질 깨닫고 동사로서 말씀에 감동 받으라

움어 된다.
그런데 우리말 한글성경은 명사와 동사 구분 없이 일괄 “말” 또는 “말씀”이란 한 단어로만 번역되었다. 똑같은 성경원어를 놓고 어떤 곳은 “말”로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번역하였다. 그리하여 상황과 배경 그리고 의도하는 바에 따라 달리 표현된 교훈과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2)명사로서의 본질을 깊이 깨달으라
명사로 기록된 말씀은 진리(다바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배가 살아난다. 경중경중 뛰면서 손을 흔들고 찬양해야만 비로소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동사화 된 말씀의 감동과 뜨거운 전율이 임해야 한다. 아울러 말씀대로 사는 삶과 신앙 인격이 온전히 드러져야 한다. 말씀이 동사라 달리 표현된 교훈과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2)명사로서의 본질을 깊이 깨달으라
명사로 기록된 말씀은 진리(다바

1)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히4:12, 13)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동사이다.
2)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이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6:11)고 명하신다. 그 마지막 단계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6:17)고 하신다.
(다음호에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수요 3부예배: 오전 11:45 월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www.churchch.com Tel: (714) 997-6494, Fax: (714) 997-6496 6901 Knoll Ave, Brea Park, CA 92629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권영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월-토)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9:30(월-토) www.churchch.com / www.bbc.org Tel: (951) 675-6494, Fax: (951) 675-6494 1750 N. Edgewood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후 9:30 Tel: (213) 619-6826, Fax: (213) 619-6827 1525 Wilshire Blvd, L.A., CA 90017 www.lighthouse.org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세례 기도: 오전 9:45(월-토) 오전 10:00(토) Tel: (310) 639-7323, Fax: (310) 639-1858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NorthFairfax)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714) 997-6494, Fax: (714) 997-6496 6901 Knoll Ave., Brea Park, CA 92629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951) 675-6494, Fax: (951) 675-6496 15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9 (LighthouseBible.org)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월-토) Tel: (310) 619-6826, Fax: (310) 619-6827 1525 Wilshire Blvd, L.A., CA 90019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714) 997-6494, Fax: (714) 997-6496 1111 N. Broadway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714) 997-6494, Fax: (714) 997-6496 15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9	동문교회 담임목사 : 최재우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Tel: (213) 619-6826, Fax: (213) 619-6827 1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권영자 목사 가정에서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입니다. 세례 기도: 오전 8:30 주일예배: 오후 7:30 Tel: (213) 619-6826, Fax: (213) 619-6827 1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213) 619-6826, Fax: (213) 619-6827 1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 639-7323, Fax: (310) 639-1858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최용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월-토) Tel: (310) 639-7323, Fax: (310) 639-1858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재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월-토) Tel: (213) 619-6826, Fax: (213) 619-6827 1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방주선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월-토)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월-토) 수요 3부예배: 오전 7:30(월-토) 주일 4부예배: 오후 7:30(월-토) 세례 기도: 오전 9:30(월-토) 6750 Merced Ave., Carmichael, CA 95608 Tel: (916) 482-6800, Fax: (916) 482-6801 Web-site: www.bethlehemchurch.org	배달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원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Tel: (916) 482-6800, Fax: (916) 482-6801 1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빈쿠버빌라벨비아교회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604) 684-6780, Fax: (604) 684-6777 2136 13th St., Surrey, B.C., Canada, V2Y 6P6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장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Tel: (213) 619-6826, Fax: (213) 619-6827 1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성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Tel: (818) 339-6777, Fax: (818) 339-6778 1027 E. 8th St., Corvallis, CA 97331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 김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월-토) Tel: (916) 482-6800, Fax: (916) 482-6801 1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월-토) Tel: (213) 619-6826, Fax: (213) 619-6827 1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새창조교회 담임목사 : 정병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Tel: (310) 639-7323, Fax: (310) 639-1858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인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최용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Tel: (916) 482-6800, Fax: (916) 482-6801 1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얼빈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Tel: (916) 482-6800, Fax: (916) 482-6801 1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오렌지카운티침례장로교회 담임목사 : 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Tel: (714) 997-6494, Fax: (714) 997-6496 6901 Knoll Ave., Brea Park, CA 92629	오웬선교회 담임목사 : 정성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Tel: (714) 997-6494, Fax: (714) 997-6496 6901 Knoll Ave., Brea Park, CA 92629	원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Tel: (916) 482-6800, Fax: (916) 482-6801 1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온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Tel: (714) 997-6494, Fax: (714) 997-6496 6901 Knoll Ave., Brea Park, CA 92629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 박진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Tel: (916) 482-6800, Fax: (916) 482-6801 1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Tel: (916) 482-6800, Fax: (916) 482-6801 1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준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Tel: (916) 482-6800, Fax: (916) 482-6801 1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Tel: (916) 482-6800, Fax: (916) 482-6801 1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로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9:30 Tel: (916) 482-6800, Fax: (916) 482-6801 15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55-0009 Fax: (323) 655-0048 ■ N.Y.: Tel: (718) 997-6494 Fax: (718) 997-6496 새로운 불어는 복음입니다

창조과학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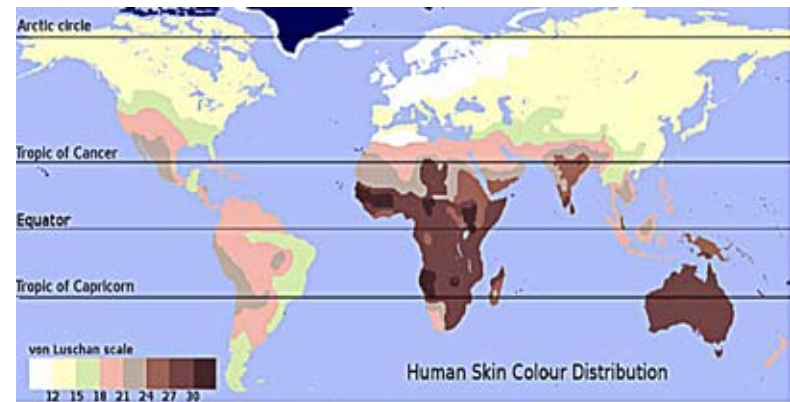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88. 성경의 쿡쿡증들(9) – 흑인은 함의 자손인가?

인종차별!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강한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몰라도 기분 좋지 않은 가벼운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라 생각된다. 비단 미국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그런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차별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게 된다.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들어 있길래 그런 차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까? 잠언 23장 7절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에 비추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인종’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우수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이 있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믿음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곳에까지도 들어와 있다. 바로 흑인은 함의 자손이란 잘못된 생각이다. 흑인이 함의 자손일까? 먼저 몇 가지 사실을 알아보자. 모든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 피부색이 다르기도 하고,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건강이나 능력이 다르기도 하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나와 같은 인종이고 어디까지가 다른 인종일까? 이런 정말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인종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은 유전적인 차이보다는 주로 눈으로 관찰되는 피부색과 언어와 같은 문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에 완성된 인간 유전자 지도 과제(human genome project)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 사이의 DNA 차이는 약 0.1%인데 인종이란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인종을 가르는 피부색의 차이는 성상 호르몬이 많이 나와 키가 2미터

가 넘는 사람과 성상 호르몬이 적게 나와 1미터 20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사람의 차이와 같은 것이다. 멜라닌을 많이 만드는 유전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적게 만드는 유전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의 차이일 뿐이다. 사람들은 작은 키로는 인종 차별을 하지 않지만 피부색은 차



1940년 이전의 인류 피부색 지도

별을 한다. 이런 현상을 보면 인종 차별은 교육된 차별임을 알 수 있다. 그 교육은 진화론의 역할이 지대했다. 하버드 대학교수이자 진화론자들의 리더였던 굴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인종차별주의를 지지하는 생물학적 주장들이 1859년 이전에 더 흔하긴 했지만, 진화론을 수용하게 된 이후로는 수십 배의 강도로 증가되었다.” 실제로 세계 2차 대전의 주범인 나치 독일이 인류 진화에 지장을 준다는 장애인, 짐시, 유대인 등 수백만 명을 제거한 사건은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혈액형의 차이에 대한 견해도 진화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A형은 성격이 어퍼하고 O형은 저렐고 등

등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진화론의 영향으로 유럽에서는 한 때 혈액형을 인종을 나누는데 사용했었다. 유럽에서 공부한 일본인들은 이 방법을 기질을 나누는데 사용하면서 일반에 퍼지게 되었는데 과학계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A형과 O형의 차이는 적혈구 세포 표면에 당(N-Acetyl-galactosamine) 한 분자가 더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A형과 B형의 차이는 B형에는 앞의 당 대신 그와 아주 흡사한 galactose라는 당이 붙은 아주 작은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혈액형은 A, B, AB, O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가지나 된다. 이 작은 차이들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하겠지만 사람의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인 보고는 없다. 만약 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미 오래 전에 밝혀졌을 것이다. 이제 흑인은 함의 자손이란 오해를 살펴보자. 이 문제는 성경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창세기 9:22은 함이 옳지 못한 행동을 했지만 노아는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을 저주

했인 함, 셈, 야벳의 자손들이다. 세 자녀가 홍수 후에 자녀들을 낳았다. 그 자녀들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사촌들 아니면 형제와 자매일 수밖에 없다. 부계로는 함, 셈, 야벳을 가를 수 있을지라도 모계를 따진다면 완전히 섞이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각 족속들이 언어에 따라 땅 구석구석으로 이주하기 시작 했다. 더운 곳으로 간 가족들 중에는 뜨거운 햇빛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잘 적응하였을 것이고 건강하였을 것이다. 반대로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해 북쪽으로 이주를 하였을지도 모른다. 육종된 수백 종의 순종 개들을 보면 순종 확립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사람의 피부색이 확립된 경우도 유전정보에 따라 그리고 자연선택과 인공선택이 어우러져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확립되었을 것이다. 세계의 피부색 지도를 보아도 각 피부색의 경계가 뚜렷하다. 이 사실은 이들 피부색이 확립된 지 얼마 되

지 않았다는 증거다. 만약 수 만년이 지났다면 상호 결혼의 결과로 경계는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지나며 언어와 민족과 나라와 족속이 생겨났다고 한다. 또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행17:26)고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담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성경 기록이 사실이란 증거는 인간 유전자 지도 과제에서 명백하게 드러났고(2003년), 족보를 통한 인류의 조상을 추적한 결과(2004년 Nature 지)도 인류의 역사를 5000년으로 확인하였다. 인류는 하나이기 때문에 키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 인종을 나눌 수 없듯이 피부색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다. 피부색이나, 신장이나, 언어나, 능력이나, 문화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가 결국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고 한다. 한 부류는 자연인이고 다른 한 부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것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경의 주장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봉 사도
(뉴저지복음장로교회)

눈이 밝아진다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창3:5).

선악과목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 명명백백하게 분명한데 왜 그전엔 그게 안보였을까? 새로운 사실에 눈이 떠질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 비밀인가? 말씀의 비밀을 조금씩 계속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격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미리 다 훤히 아시면서도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너희들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미 어떻게 할지 아시는데 왜? 왜? 왜? 선악과를 에덴에 두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볼 때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독약이야”라고 경고하신 것이라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선악과를 동산에 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따먹을 나무가 없지 않았겠는가? 안보여 따먹지 않았다면 이런 죽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많은 질문을 홍수처럼 쏟아내느라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사실이 크게 눈에 들어 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아는 능력에 있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아는 일에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고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진다고 해도 피조물이니 결코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마귀가 막강의 초능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될 것으로 여겼지만 마귀도 역시 피조물이기에 창조주로 자리는 바꿀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무모한 일을 꾀하다 이미 주어진 최고 천사의 영광의 자리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거짓말의 대장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탐욕의 거짓을 따라갔을 때 멸망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똑같은 경로로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 무모한 거짓 환상의 유혹을 한 것입니다. 결국 많은 능력을 부여하면 주인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되겠다는 탐심이 아주 자연스레 들어온 것입니다. 초능력을 받은 대장천사가 창조주가 되겠다, 제 자리를 떠났다, 죽음을 맞는 것처럼 선악과가 동산에 없었더라도 결국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받은 최고 피조물 인간이 고만해져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꾀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그대로 막아주시려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것이란다”는 진리를 경고의 목적으로 “선악과는 독약이다”라고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이탈하면 곧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라면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창조주가 되려함은 몸에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잘라내면 몸의 일부로 머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머리가 몸에서 떠나는 순간 사람은 죽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피조물로 살아감이 얼마나 복인지요. 설사 아는 것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 해도 그 아는 것만큼 그것을 유지할 겸손도 사랑의 능력도 따라오지 않으면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하나님처럼 아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쥐어준 것 같겠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 넘치건만 만족를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것도 아니요”(고전13:2). 제일 큰 능력은 전자가 아니라 사랑을 깊이 절감합니다. 우리는 해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아야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달임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4:00
주일학교: 오후 11:00

Tel: (704) 441-0821, Fax: (704) 441-1825
www.chcpress.com
2819 Melrose Rd., Charlotte, NC 28217

멘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Tel: (203) 422-0850, Fax: (303) 422-0843
7760 Ridgely Dr., Arden, CO 80015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4:00

Tel: (813) 222-0891, Fax: (813) 222-7777
5260 Morris Rd., Landover, VA 22046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동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한국)
수요예배: 오후 8:00

Tel: (215) 649-1912, Fax: (215) 649-8662
1550 Woodstone Rd., Levittown, PA 19007

멜렐교회

담임목사: 전용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4:00

Tel: (415) 431-1222, Fax: (415) 431-8823
2165 St. James Lane, Elmont, NY 11002

보스톤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4:00

Tel: (617) 435-4278, Fax: (617) 435-2487
2 Main St., Boston, MA 02108

폴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410) 342-8444, Fax: (410) 342-8444
1525 Sandstone Ave., Huntley, MD 21083

살롬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 예배: 새벽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전 11:00

Tel: (704) 359-0805 / (919) 486-1111
701 Scenicview Blvd., Charlotte, NC 2825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표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한국)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305) 425-2911
6007 Pacific Ave., Fort St. St. 33158
Lacey, WA 98502

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주일 4:00(한국)
새벽기도회: 주일 8:30

Tel: (206) 222-0891, Fax: (206) 222-1745
4640 N. 10th St., Seattle, WA 98105
www.kccpress.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4:00(한국)
새벽기도회: 주일 8:30

Tel: (501) 870-8048, Fax: (501) 425-3179
805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kccpress.org

앵커리지델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업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807) 344-6445, Fax: (807) 344-3187
8320 Greenwood Ave., Anch., AK 99518

앨파소델린교회

담임목사: 하계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253) 515-5450, Fax: (253) 515-4285
3418 Arden Ave., Ft. Worth, TX 761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걸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주일 4:00

Tel: (714) 342-0288, Fax: (714) 342-0288
710 Weber Ave., Houston, TX 77042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281) 434-0705, Fax: (281) 434-4822
408 N. 8th St., Abilene, TX 7960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재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4:00(한국)
새벽기도회: 주일 8:30(한국)

Tel: (206) 449-4447, Fax: (206) 449-4448
4013 Matthews St., Vancouver, BC V6M 4K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박현창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4:00(한국)
새벽기도회: 주일 8:30(한국)

Tel: (804) 299-7000, Fax: (804) 299-7554
10201 Robison Rd., Richmond, VA 23235

큰문교회

담임목사: 나병상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주일 4:00
새벽기도회: 주일 8:30(한국)

Tel: (410) 209-0516, Fax: (410) 209-0516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4:00(한국)
새벽기도회: 주일 8:30(한국)

Tel: (206) 865-1000, Fax: (206) 865-1000
7401 E. Verde St., Tacoma, WA 98406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형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4:00(한국)
새벽기도회: 주일 8:30(한국)

Tel: (253) 515-5450, Fax: (253) 515-4285
3418 Arden Ave., Ft. Worth, TX 76104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4:00(한국)
새벽기도회: 주일 8:30(한국)

Tel: (253) 515-5450, Fax: (253) 515-4285
3418 Arden Ave., Ft. Worth, TX 76104

렘마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한국)
수요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주일 4:00(한국)
새벽기도회: 주일 8:30(한국)

Tel: (480) 377-0115, Fax: (480) 377-0115
1120 E. Sunset Blvd., Chandler, AZ 85226

하트포트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만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주일 4:00(한국)
새벽기도회: 주일 8:30(한국)

Tel: (800) 449-4778, Fax: (800) 449-4778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5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지역

아가페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4:00(한국)
새벽기도회: 주일 8:30(한국)

Tel: (808) 735-0911
1538-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주일 4:00(한국)
새벽기도회: 주일 8:30(한국)

Tel: (808) 735-0911, Fax: (808) 735-0911
1538-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주일 4:00(한국)
새벽기도회: 주일 8:30(한국)

Tel: (808) 735-0911, Fax: (808) 735-0911
1538-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4:00(한국)
새벽기도회: 주일 8:30(한국)

Tel: (808) 735-0911, Fax: (808) 735-0911
1538-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APU에서 처음 실시한 ECA교단 목사안수감사예배를 마치고 이날 행사순서를 담당한 자들이 안수받은 목회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주사퍼시픽대-ECA교단 연계 첫 목사안수...박운송 방금화 송성주 목사 감사예배

아주사퍼시픽 대학교에서 ECA교단과 연계해 실시된 첫 번째 목사안수식이 지난 7일 오후 6시30분 패서디나에 위치한 패밀리채플 인터내셔널에서 갖고 이에 대한 목사안수감사예배를 12일 오전 11시 한인타운 내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안수감사예배는 지난 7일 오후 목사안수를 받은 박운송 목사(오아시스교회), 방금화 목사(ANC은누리교회), 그리고 송성주 목사(슈마교회)가 아주사퍼시픽 대학교에서 이들을 지도했던 한인교수들이 사회와 설교 그리고 축사 및 격려사를 맡은 가운데 열렸다.

다니엘 뉴먼 목사(본교 한인목회학박사과정 디렉터)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류창식 목사(전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장)가 기도, 방금화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박성민 목사(본교 부총장)가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사6:1-8, 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박성민 목사는 "목회자는 천사도 흠모하는 성직이며 그것은 자력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직분자로 소명을 받은 자는 그 직분을 사랑하게 된다. 목회자의 직분으로 소명 받은 자는 맡겨진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죽도록 충성하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석웅 목사(본교 교수)가 격려사 및 축사를, 꿈이있는자유 정종원 목사(아이엘교회 담임)가 축송을 했다. 이날 예배는 송성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 제2대 총장에 송정명 목사 6월2일 졸업식에서 취임식 갖고 업무 본격 시작

미주평안교회 담임 송정명 목사가 23년 역사를 자랑하는 월드미션대학교의 제 2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본교 재단이사회(이사장 유성환 목사)는 지난달 24일 송 목사를 제2대 총장으로 선출했으며 송 목사가 이를 수락함으로 결정됐다.

송정명 목사는 "부족한 사람이 총장으로 선임이 되어 무거운 그러나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목회학박사학위 소지자라 총장이 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사회에서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은 단지

학적으로 뛰어난 분을 선출하는 것보다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 학교를 이끄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으게 됐다"고 총장선출 배경을 밝혔다.

송 목사는 성결대학교 신학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상담심리)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학위(D. Min)를 취득했다. 송 목사는 월드미션대학교와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미주성서화 운동본부 LA대표회장,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



월드미션대학교 제2대 총장에 선임된 송정명 목사.

표창장을 받고 있다. 본교 총장 취임식은 오는 6월 2일(토) 오후 1시 월드미션대학교 졸업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뉴욕전도협의회 주최 영적각성 연합기도성회 첫날 뉴욕어린이양교회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성령의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되자” 뉴욕전도협, 영적각성 연합기도성회 개최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황영진 목사)가 주최한 뉴욕지역 복음화를 위한 영적각성 연합기도성회가 지난 11일과 12일 뉴욕어린이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와 낙원장로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성령의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되자”라는 주제로 김병호 목사(민락중앙교회 담임)를 강사로 열린 기도성회는 첫날 박성원 목사(부회장)의 인도로 뉴욕어린이양교회의 찬양팀의

(10면으로 계속)



APU에서 처음 실시한 ECA교단 목사안수감사예배를 마치고 이날 행사순서를 담당한 자들이 안수받은 목회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역과 직장, 도시를 회복시킨다!” 쉐퍼드대학교 Transformation LA 세미나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장 살롬김 박사)는 오는 6월 9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타운 내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트랜스포메이션 LA' 세미나를 개최한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전 학장으로부터 강의 받는 제자들이 개최하는 본 세미나는 '사역과 직장'과 도시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테마 아래,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불경기 속에서 힘들어 하면서 길을 모색

하는 크리스천과 교회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살롬김 학장은 “이번 세미나는 그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안내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8:00, 11:00 수일예배: 오후 1:30 신앙강화: 오후 6: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기도: 오후 8:00 Tel: (718) 282-2282, Fax: (718) 282-2282 40-75 Flushing Ave, Flushing, NY 11355 www.gatsema.org	뉴욕독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예배: 오전 8:0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5 Williams Ave, Queens, NY 11104 www.dongyang.org	뉴욕빌라벨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예배: 오전 8:0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2 Beason Rd, Queens, NY 11106	뉴욕새사랑교회 담임목사: 이종철 주일예배: 오전 10:3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뉴욕순복음안다목교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예배: 오전 7:3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예배: 오전 8:0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뉴욕주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예배: 오전 8:0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뉴욕호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희호 원로목사: 방지자 주일예배: 오전 7:15,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박성희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3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폰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12: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메디니교회 담임목사: 장동환 주일예배: 오전 7:3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어린이양교회 담임목사: 김수백 주일예배: 오전 8:0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유니온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박재현 주일예배: 오전 8:0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준 주일예배: 오전 12:30, 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예배: 오전 12:00, 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핀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예배: 오전 8:3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핀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철 주일예배: 오전 8:0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한미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재현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718) 381-8188, Fax: (718) 381-8188 40-54 112 St, Flushing, NY 11355 www.ssa.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213) 985-0709 N.Y.: Tel: (212) 985-0709 Fax: (212) 985-0709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박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0 Tel: (202) 777-1466, Fax: (202) 777-1466 R. Lundy Ave W Lundy St, P.O. Box 10000, P.O. Box 10000, P.O. Box 1000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종현 주일예배: 오전 9:0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 Tel: (202) 777-1466, Fax: (202) 777-1466 R. Lundy Ave W Lundy St, P.O. Box 10000, P.O. Box 10000, P.O. Box 1000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예배: 오전 8:3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202) 777-1466, Fax: (202) 777-1466 R. Lundy Ave W Lundy St, P.O. Box 10000, P.O. Box 10000, P.O. Box 10000	아르헨티나 제임교회 담임목사: 최병현 주일예배: 오전 8:0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54) 1114-531-1758 AV. CALABAZO 1353, CAP.FED., B.R. A.,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희상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 Fax: (562) 558-7626, (562) 558-7626 Santiago Curvo - 3 Casilla 33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병관 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11:00 수일예배: 오후 2:00 신앙강화: 오후 6:30 금요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595) 277-574-595 E-mail: imbyung@paraguay.org Caracas, VZ, 1201, Anaco-Paraguay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신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21일(월) 오후 8시 퀸즈장로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 목회학석사 9명, 신학교석사 1명, 여교역학 3명, 신학사 5명, 음악학사 2명 등 총 20명이 졸업한다.
▲문의: (718)463-7163

미주보수교회연합회 창립총회

미주내 보수성향 교회들의 연합을 목적으로 하는 미주보수교회연합회가 오는 21일(월) 오전 10시 임마누엘교회(담임 장시문 목사)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다. 연합회 설립준비위원장에는 김명옥 목사, 총무 박진하 목사, 서기 김진화 목사, 회계 이준성 목사 등이 참여했다.
▲문의: (347)721-6003(서기)

온라인 크리스천 리더십 박사과정 학생 모집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온라인 크리스천 리더십 박사과정/연구과정 학생을 모집한다.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계절별 세미나 참가를 통해 리더들과 교류하며 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미국 본교로 유학도 가능하며(1-20비자 발행) 한국어/영어 교육이 모두 가능하다. 웹사이트 www.midwest.edu
▲문의: (636)327-4645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해외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가 28일(월) 오후 4시부터 30일(수) 정오까지 뉴저지 주예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열린다. 회비는 100달러(부부 150달러). 총회 후 뉴욕명소 관광이 있다.
▲문의: (718)445-0362

퀸즈장로교회 2012 춘계 선교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가 주최하는 2012 춘계 선교바자회가 6월 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본 교회 지하친교실 및 파킹장에서 열린다. 남녀 전도회원과 청년부, 영어예배부, 중고등부가 모두 참여하는 이 바자회는 각 음식물 등 먹거리부터 생활용품, 의류 등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며 매 회마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문의: (718)886-4040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이사장취임예배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회장 이병홍 목사)가 22일(화) 오전 8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장석진 목사(뉴욕성결교회)의 이사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날 설교는 국제사랑재단 총재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담임)가 맡는다.
▲문의: (917)558-7435

'장애인 큰잔치'

뉴저지 밀알선교단과 뉴저지 초대교회 주최로 19일(토) 오전 11시20분부터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장애인 큰잔치'가 열린다.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지역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장애인 사역의 귀중함'과 '특수교육의 출발점'이라는 특강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예술·교육 전문 비영리단체 이노비(E.noB, 대표: 강태욱)도 초청, 이들을 위한 흥겨운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이날 이노비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나고 경쾌하게 편곡된 뮤지컬 곡을 3명의 싱어가 키보드, 베이스기타, 드럼 반주에 맞춰 연주해 아이들이 신체적/정서적 한계를 잊어버리고 음악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흥겹게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212)239-4438



미동부지역 목사회 연합체육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제6회 미동부지역 목사회 연합체육대회 메릴랜드 종합우승, 축구 뉴욕, 줄다리기 필라 우승

제6회 미동부 지역 목사회연합 체육대회가 지난 8일 메릴랜드 새소망교회(담임 안인권 목사)에서 개최돼 종합우승은 메릴랜드목사회가 차지했다.

뉴욕목사회(회장 김승희 목사)를 비롯해 메릴랜드(회장 최영 목사)와 필라델피아(회장 최형관 목사) 목사회 소속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회에서는 축구, 배구, 족구, 줄다리기 등의 경기가 진행됐다.

축구는 뉴욕목사회가 우승을 차지하고, 배구와 족구는 메릴랜드, 줄다리기는 필라델피아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6회의 대회는 메릴랜드에서 3회, 필라델피아에서 2회, 뉴욕에서 1회 열렸으며 내년 제7회 대회는 뉴욕에서 열린다.

체육대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메릴랜드목사회 회장 최영 목사 사회로 필라델피아 회장 최형관 목사의 기도와 이광희 선교사의 특송에 이어 나광삼 목사(메릴랜드목사회 경정회장)가 “갈렐의 건강관리”(수14:6-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축도는 뉴욕목사회

회장 김승희 목사가 맡았다.
(정리: 유원정 기자)



갯세마네교회 부흥회에서 강사 장영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뉴욕갯세마네교회 춘계전도부흥성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사 장영춘 목사

뉴욕갯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가 본지 발행인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 원로)를 초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춘계전도 부흥성회를 가졌다.

강사 장영춘 목사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저녁과 새벽

(9면에서 계속)

경배와 찬양에 이어 합심기도 ① 회개와 영적각성(이종선 목사) ② 교계화합과 뉴욕복음화(오태환 목사), 특송 뉴욕여린양교회 찬양팀, 설교, 헌금기도 이종선 목사, 축도 김수태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명호 목사는 첫날 아가서 7장 7-1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전도

로 교회가 부흥한 과정을 소개하며 “예배당을 잘 짓는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에 영혼을 맡겨주신다”며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전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날은 김기호 목사(회계)의 인도로 낙원장로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합심기도 ③성령충만과 교회부흥 ④영적전쟁 승리와 전도사명(김희복 목사), 특송 월드밀알선교합창단, 설교, 헌금특송 김영환 집사, 헌금기도 안승백 목사, 축도 이성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둘째 날 김명호 목사는 전도서 12장 3절을 본문으로 “전도는 순종이다”라는 제목으로 민락중앙교회의 전 교인 길거리 전도운동에 대해 전하며 전도가 가져오는 부흥과 축복의 비결에 대해 강조했다.

뉴욕전도협의회는 현재 24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유원정 기자)

여 오순절을 통과하라”(행1:1-14), 주일 오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행20:17-28), 낮 “청지기 인생의 사명”(벧전4:7-11)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장영춘 목사는 주일 2부 예배 “청지기 인생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때에 한인들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지용 목사는 “스승이신 장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한다”며 “물질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목사님께 늘 감사드리며 이번 성회를 통해 교회가 말씀의 반석위에 굳게 서고 이를 바탕으로 부흥발전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조직발표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오바마 동성결혼지지 강력반대 일간지에 광고...9일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조직발표

뉴욕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에 대한 교협의 입장을 밝혔다.

뉴욕교협은 5월 15일자 일간지 광고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9일 ABC방송 인터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연사이며 성경에 반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존재적 가치를 추락시키는 놀라운 일이라고 밝히고 세계인과 기독교인 앞에 정중히 사과

하라며 미국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철회되는 날까지 강력하게 항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협은 지난 9일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조직을 발표했다. 할렐루야뉴욕교회(담임 이광희 목사)에서 가진 준비모임에서 고문, 대회장 등 임원, 집행위원, 분과위원들을 발표하고 준비기도회 및 일정을 밝혔다.

대회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7월 6일(금)-8일(주) △장소: 퀸즈한인교회(이규섭 목사) △강사: 이태희 목사(서울성락교회).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열리는 △어린이대회 강사는 변현수 전도사(뉴욕초대교회 유초등부)이며 △청소년 대회는 7월 26일(목)-28일(토) 퀸즈한인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미정. 한편 △목회자세미나는 7월 9일(월) 오전 10시30분 이태희 목사를 강사로 순복음연합교회에서 열린다.

1부 경건회는 이희선 총무의 인도로 기도 이대연 이사장, 메시지 이광희 준비위원장, 통성기도, 광고, 축도 박희소 고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이광희 목사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본문으로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 설교했다. 이 목사는 “사도바울은 성령(행16장), 말씀(행18장), 사명(행20장)의 세 가지에 붙잡혀 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증거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며, “인간은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의 두 가지 형이 있는데 우리의 존재

이유가 복음증거임을 잊지 말고 일에 매진해나가자”고 말했다.

2부 조직발표는 현영갑 서기가 진행했다. 고문은 역대 교협회장을 모두 포함시켰으며 △대회장 양승호 목사 △부대회장 김중훈 목사, 황규복 장로 △총무 이희선 목사 △서기 현영갑 목사 △부서기(강사영점) 최요셉 목사 △회계 이의창 장로 △부회계 최운동 목사 △준비위원장 이광희 목사 등과 진행 및 분과위원장도 발표했다.

양승호 목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변화하기 힘들다”며, “미주보수연합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일절 코멘트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강사 결정 이전에는 염려가 많았으나 결정한 이후에는 적극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며 지원금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

교협은 할렐루야대회를 위해 4차 기도회를 갖는다. 1차는 5월 29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www.sbm.or.kr

크리스천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총재 황 의 영 목사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영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 기독교 생활개혁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BAL MOVEMEN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성물 바른선교를 자랑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동북단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 전체뉴스
- 칼럼
-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를 이용해서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24시간 운영

뉴욕곰탕 스테이크

New York Kom Tang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24시간 오픈

연락처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8-0201

adidas AUTHORIZED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9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침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동성애교육 반대법안 서명운동 2단계 돌입

남가주교계...6월12일 PRE 7월11일 Class Act 마감

남가주 교계단체가 PRE(Parental Rights in Education)과 Class Act 제2단계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됐다.

지난 4월 20일까지 Christian Coalition of California(한인대표 사라김 사모)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의 목사, 이하 교협) 등 교계단체가 주도해 실시해온 동성애교육 반대를 위한 주민발의안인 PRE(Parental Rights in Education)과 Class Act 서명운동 결과 법안상정 가능한 50만 5천표 중 3만표가 부족해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국민투표에 상정할 수 없게 됐다.

교협관계자에 의하면 그동안 모아진 서명자는 총 55만여 명이였지만 이름, 주소, 사인 및 서명지를 돌리는 사람이 서명하는 용지 가장 아래에 있는 Circulator의 서명란 미기입 등을 비롯해 서명용지 복사본 오류 등의 문제로 8만명이 무효표로 판명돼 주민발의안 상정에 실패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성애교육 반대위원장인 교협부회장 박성규 목사(주진세운교회)는 오는 6월 11일 PRE 서명 마감일과 7월11일 Class Act 서명 마감일까지 발의안 상정 미달인 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남가주교협에서 PRE및 Class Act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교협임원들.

록 모든 교계가 총동원해 반드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작년에 실시된 SB48 반대 서명운동에서는 7천여표가 부족해 주민발의안 상정에 실패했다. 이번에 실시한 서명운동 역시 8만표가 무효가 됐으며 주민투표가 가능한 50만5천표에 3만표가 부족해 실패하게 됐다. 그러나 오는 2014년에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위해 다시 힘을 모을 것이며 지난 3개월여 동안 실시 제출해 유효표로 판명된 용지는 다시 활용이 가능한 만큼 6월과 7월에 마감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2014년 주민투표는 가능하리라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미주개혁신학대학교 졸업식을 마친후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개혁신학대학교 제21회 학위수여식

미주개혁신학대학교(총장 박요한 박사)는 제21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12일(토) 오전 11시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개최했다.

본교교수인 주현상 박사의 인도로 시작된 졸업예배는 교기 및 국기 입장, 국가연주, 개식사, 묵도, 찬송, 기도로 이어졌으며 정지운 박사(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 회장)가 성경봉독을, 박요한 총장이 ‘이때를 위하여’ (예4: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열린 2부 학위수여식은 박흥수 박사의 사회로, 서운주 박사(토론토 분교장)가 학사보고를, 박 분교장이 학위수여를, 그리고 김문희 박사(유아교육학과장)가 유아교사자격증 수여를, 티나박(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평의회)이 사

회봉사상 수여를 했다. 이어 정해진 박사(남가주명성교회)와 김성대 목사(찬양교회)가 축사를 했으며 서길영 졸업생이 답사했다.

다음은 제21회 미주개혁신학대학위수여자 명단.

△신학박사: 이호성, 박경숙 △목회상담학박사: 박종호, 정휘자 △신학석사: 서길영, 김경준, 이재현, 박순우, 최경일, 여익환, 배영자 △문예창작석사: 김미미 △유아교육학석사: 정선희, 홍진희 △목회상담학석사: 김광숙, 박순옥, 이윤순 △사회복지학석사: 최재승 △신학박사: 이현숙, 조미옥 △신교학박사: 김승규 △목회상담학박사: 장옥희, 박금란 △기독교교육학박사: 신정애.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예장총회 설립100주년기념 해외선교대회

대한예수교장로회는 교단설립 100주년을 맞아 해외선교대회를 5월 29일(화)부터 31일(목)까지 ‘은혜의 100년, 빛으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나성열린문교회(담임 박헌성 목사)에서 개최한다.

▲문의: (714)504-4257/한성수 목사, sshan32@gmail.com

KPCA 제37회 총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김재동 목사)는 제37회 총회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22일(화) 오후2시부터 24일(목) 정오까지 타코마 새생명교회(담임 임규영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미국 각 지역, 캐나다, 남미, 중미,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유럽에서 19노회 398명의 총대들이 참가한다.

▲문의: (253)525-6207

기독교상담소 목회자 대상 세미나

기독교상담소(소장 염인숙)는 목회자 대상으로 무료 세미나를 21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패서디나장로교회(담임 성현경 목사)에서 ‘이민사회 성도의 정신건강을 위한 목회적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의: (213)381-7554

윌드타운교회 부흥성회

윌드타운교회(담임 이모세 목사)는 신필수 목사(안양 동광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부흥성회를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갖는다. 시간은 오전 11시와 저녁 7시.

▲문의: (213)382-3258



살롬장애인선교회에서 주최한 제13회 경로잔치에서 박모세 목사가 이날 참석한 분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살롬장애인선교회 제13회 경로잔치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는 제13회 살롬 경로잔치를 어버이날인 8일 오전 11시 타운내 만리장성 식당에서 열었다. 이날 경로잔치에서 박모세 목사는 잠언 1:8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자녀주심에 감사하는 자,

나라와 교회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후배와 자손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존경받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삼성장로교회, 주니어를 위한 성경일독 캠페인

삼성장로교회(담임 신원규 목사)가 지난 2006년 2월 12일 주일부터 시작한 ‘주님께 드리는 성경만독 대행진’이 이번에는 2차로 주니어를 위한 성경일독 캠페인으로 발전됐다. 또 그 대상도 교회 밖으로 확장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라는 말씀에 의거해 실시하는 이 캠페인에 대해 한 관계자는 “세상의 혼란한 가치관 속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 우

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령에 심어질 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해서 다음세대를 이어갈 섬기는 리더로써 비전을 갖게 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마감은 12월 1일이며 참여대상은 초등부부터 9학년까지. 시상내용은 장학금 개인별 50달러와 메달이며 12월 9일(주) 시상한다. 성경일독 신청카드를 본 교회 홈페이지

(www.samsungchurch.org)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교회 사무실에서 받으면 된다.

한편 만독 대행진은 본 교회 조관국 장로 36독을 비롯해 성도들마다 성경을 읽은 횟수가 다르지만 현재 5백독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문의: (562)690-9800

THE KOREAN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U.S.A. Tel (213)389-8987

미주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소집공고

수신 : 총회원(강도사 포함)
발신 : 총회서기
제목 : 2012년도 제19회 정기총회소집

성삼위 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받들어 헌법 제2장 6조 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19회 정기총회를 소집하니 부디 참석하시기 바라오며 본회 신조와 신학노선을 찬동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 장소 : 칼빈신학교 강당
- 일시 : 2012년 6월4일(월)-5일(화)
- 참가비 : \$100, 2인참가시 \$160(항공료는 지교회 부담)
- 강도사 : 강도사 고시, 고시료 \$150 (재용시자 포함)

강도사고시공고

- 일시 : 2012년 6월 4일(월) 8:30 A.M.
- 장소 : 칼빈신학교 강당 4055 Wilshire Blvd #419 L.A., CA90010
- 자격 : M.Div 학위 소지자(본교 졸업자 및 본교단 노선 지지자)
- 전형서류 : (1) 담임목사 추천서 (2) 신대원 졸업증명서 사본 (3) 고시료 \$150 (예상문제집 포함)
- 과목 : 논문 - 개혁주의 교회론을 논하라. (글자크기 10, 장평 100, 20매)
주해 - 로마서 1:1-17 (글자크기 10, 장평 100, 20매)
설교 - 이사야 6:1-13 (10분 설교분량)
필답 - 조직신학, 교회정치, 교회사(총 6과목)

6. 문의 : 고시부장 김명성 목사 : 213) 718-8125 (mygolden38@hanmail.net)

미주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총회장 • 신태환 목사 고시부장 • 김명성 목사

특별기고

기존 ‘한글개역성경’ 그대로 사용할 필요 있다



이운석 목사
원성장로교회 부목사

들어가는 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 번역된 지 한 세기가 가까운 번역이므로 오늘날 이 번역을 그대로 계속하여 쓰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한글의 맞춤법이 달라졌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실제 언어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기에 기존의 번역 성경을 개정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1960년대부터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그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자 학자들이 노력하여 기존의 개역성경을 개정한 성경을 내놓은 지 10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개정개역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원문이 전하는 바를 그대로 전하도록 번역했는가 하는데 있다. 개역 개정판을 대하는 성경 원어에 익숙한 성경학도들이나 학자들은 여기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언급해야 할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기존 한글 개역성경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회자되고 언급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고 기존 한글 개역성경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1.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의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제 96회 총회가 2011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북대학교 삼성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 총회의 성경 사용에 대한 입장은 ‘개역개정판’이 아니라 기존의 ‘개역 성경’을 강단용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결의하였는데, 발표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작금의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계시라는 불변의 진리를 퇴락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축자영감설을 부정하는 자들의 해석들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켰습니다. 다소 번역의 차이 혹은 표현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오역과 왜곡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한글개역 성경’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진리 전파와 수호를 위해서 성경 원문의 뜻을 충실하게 살리면서 이 시대 사람들의 신령한 교훈에서 전혀 손상이 되지 않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 96회 총회에서 ‘한글개역성경’을 강단용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총회 산하 모든 지교회들과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의 신학 연구결과에 의한 분명한 판단을 우리는 심사숙고하며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필요가 있다.

2. ‘한글개정개역성경’을 강단용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적합성

다음은 개정개역성경이 강단에서 사용되기에 적절하지 못한 몇 가지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1) 신학적인 무책임성
다음은 2011년 7월 22일자 교회연합신문에 발표되었던 내용이다.

보수는 받지 않겠다”고까지 성서공회에 제안했으나 공회는 이 요구를 거절하고 서둘러 인쇄를 할 때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경으로 판이 바뀌어 지금 교계에는 각기 다른 네 종류의 개역개정판 성경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3) 번역상의 오류
한국교회연론회는 2007년 “성경번역은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며 개역개정판 성경에 대한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번역상 오류된 단어나 문장이 1

개역성경, 맞춤법·언어변화로 개정 필요성 논의 불구
개정개역은 원문 전달에 문제 많아 기존성경고수 지지



만여 곳이며, 그 중 신속히 고쳐야 할 곳만도 4천여곳이나 되고, 심지어 개역성경에서 바르게 번역된 내용을 개악(改惡)한 경우가 7백여 곳이나 된다고 밝히고, 대한성서공회는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고 개역개정판 성경의 보급을 당장 중지하며 이를 회수하고 각 교단 총회는 개정판의 사용 승인을 시급히 취소해 두었다가 표준 새번역이 거부되자 부랴부랴 판을 만들어 출판했는데 너무 서둘다 보니 결국 네 번에 걸쳐 판을 낼 때마다 새로운 성경으로 둔갑하는 ‘누더기 성경’이 되고 만 것이다.....

2) 개정 감수위원회 일부 임원들의 오류 시인
당시 개정 감수위원회에 참가했던 임원들조차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있다고 한다. 임원이었던 모교수는 “감수 작업을 위해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을 더 달라. 이에 대한

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히, 율로 아쉬벤나)
-개역개정: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본 절에서 발람 자신은 하나님께서 배부시기로 작정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돌이킬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발람이 하나님의 복을 배풀거나 돌이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고 번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발람이 가로챘 것으로 잘못 번역하였다.

5) 신약의 실례
가)사도행전 2장 3절
-개역한글: 불의 혀같이 갈라지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개역개정: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 신앙에 극심한 혼란을 주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5) 신약의 실례
가)사도행전 2장 3절
-개역한글: 불의 혀같이 갈라지

글성경은 빠르게 번역된 개역성경을 개악하였다.

나가는 말

미국교회나 영국교회의 경우 다른 많은 현대에 번역들이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 교회들이 권위성 성경(Authorized Version, KJV)을 강단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4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성경을 강단용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권위있는 사본을 사용한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이기 때문이다.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겼던 종교 개혁자들의 기도와 연구가 선행된 번역본이기 때문이다. 권위성 성경에 있어 오래되어 의미가 애매한 표현들은 지금도 성경 밑 부분이나 가운데 부분에 쉽게 표현됨으로 권위성 성경은 오히려 그 아름답고 권위있는 표현들로 인한 진가를 드러내며, 이 번역이 우월시 되고 있는 입장이다.

한국교회들은 지금 80%의 교회가 개역개정판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성서공회는 아직 새로운 성경의 번역을 위한 번역기구 하나도 구성하지 않고 있다. 성서공회는 개역개정판이 잘못된 성경이라고 교단장들을 설득해서 개교회가 사용토록 하고 있다.

물론 어려운 한자의 쉬운 표현이나 현대 맞춤법의 표현에 대한 공로는 인정한다. 그러나 위에서 표현한 몇 가지의 부적합성의 실례만 보더라도 필자는 기존 개역성경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싶다. 성경번역을 하는 방법에는 문자대 문자(Corresponding translation), 혹은 역동적(Dynamic translation)인 방법이 있지만 우리의 기존 ‘개역성경’은 중도적 입장을 취하여 잘 번역된 성경이다.

맞춤법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원문의 내용과 동일하도록 맞추려는 최대와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한글 맞춤법에 입각한 말들은 성경 밑 부분에 주를 달아서 얼마든지 보충해 줄 수가 있다. 그러나 원문을 잘못 번역한 것이나, 무시한 것이나 빼버린 것은 그야말로 개역(改譯)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비록 지금 80%의 교회와 교인들이 ‘개역개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고자 하는 개혁교회의 입장인 성경의 무오성과 축자영감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항상 견고하게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성경 원문에 입각한 정확한 번역을 위해 진력함으로써 한국 개교회들의 입장을 표방하는 시대에 합당한 성경 번역이 출판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한국 개혁교회의 신앙과 신학에 충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기존의 ‘개역성경’을 아직은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끝]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재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청 주일날가축예배1부: 오전 7:40 주일날가축예배2부: 오전 9:30 주일날가축예배3부: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02)31-984-2939, Fax. (0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북방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송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매일)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02)440-9000, Fax. (0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622-3 (158-053)	새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침례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02)2-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독성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398-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쉼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338-7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미원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9:00 Tel. (02)2-786-6579, 사택 (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장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동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자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0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반 기독교적인 미국 법안 안내



새라킴 사도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TVNEXT.org) 설립자, Christian Coalition 한인대표

아는게 힘!
PRE 특별시리즈

다음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치열한 “가치관 전쟁”의 한몫을 담당하는 Parental Rights in Education(PRE) 는 6월 11일까지 계속된다. 1차적으로 4월 20일까지 국민 투표(ballot) 가능성을 검토받기 위해 새크라멘토에 보내진 PRE 서명운동을 잘 마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열심히 뛰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한인 사회의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가치관 전쟁은 계속 되지만 우리 모두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이번 PRE 1차 과정에서 짧은 2개월만 동안 한인들이 새크라멘토에 보낸 서명들은 총 19,000개가 넘었다. 저희에게는 숫자만 리포트 해주고 직접 PRE 본사로 보낸 서명까지 계산하면 총 24,000개 정도로 예상된다.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서명들을 받아 주신 모든 수고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공립학교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PRE, 18세 미만의 낙태 때 부모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하는 CPR(Californians for Parental Notification), SB48을 뒤집는 Class Act 서명운동을 위한 한인 교회와 한인 지역의 활동은 참으로 눈부셨다!!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수고는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어둡고 혼돈스럽기만 한 21세기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을 뿐 아니라 밝은 소망의 빛과 회복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주시는 최고의 소중한 일을 감당해 주셨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인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그동안은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바빠서 내 가정, 내 교회가 잘되고 성장하는 것에만 집중하느라고 조용하기만 했던 코리아의 목소리와 사회와 국가에 대한 관심도가 STOP SB48 이후 다시 한번 캘리포니아의 주류 사회와 단체들에게 attention을 받으며, 잠잠히 숨겨져 있던 한인들의 힘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아

주 귀한 계기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세대를 가치관 전쟁에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기성세대가 한마음이 되어 이렇게 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땀 것은 Prop. 8때와 STOP SB48때 그냥 “서명운동”으로만 참여한 것 이후, 새로운 발의안까지 만들어 처음부터 직접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며 한 방향을 향해 전 국민이, 다민족들이 함께 땀 것은 처음이었다. 따라서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한 수고를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아직 우리들이 갈 길은 먼 듯 하다. 미국의 회복을 위한 더 많은 진실된 회개 기도와 서로의 협동과 더 많은 교회들의 하나됨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주실 때마다 이제는 기대 또한 더 커지는 듯 하다.

PRE 의 진행과 그 다음 단계 1차적 PRE의 진행과정은 4월 20일로 끝나지지 않고 미달된 유효서명의 숫자만 더 채워서 6월 11일까지 보내도록 하겠다. 따라서 아직 서명을 할 수 있는데 못한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서명해 보내주시면 된다. 이미 하신 분들은 다시 서명하면 안 된다. 혹시 내가 서명을 엉터리로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다시 하면 된다.

2차적 PRE의 전략은 STOP SB48 때와 달리, 1차 때의 모든 표를 무효화 시키지 않고 2차로 연장전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많이 모일수록 유효 서명 숫자에 대해 기회가 많아지므로 미달된 유효서명 숫자에 관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받으면 된다.

주로 무효화 된 서명의 가장 큰 이유들은 missing information, missing circulator's information or the signature 때문이었다. 그 다음은 청원서 크기가 완전히 다르든지, 또는 복사(copy)를 해서 지저분하고 스캔을 한 것들이 무효화 됐다. 최대한으로 무

효화를 줄이고자 했으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PRE 발의안 준비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들

6월 11일까지 연장된 PRE와 앞으로 7월까지 서명할 Class Act 서명운동을 통해 여러 가지로 선한 기회들을 주님께서 많이 주셨다.

1)우선은 한인사회뿐 아니라 미국사회에서도 동성애의 심각한 성과, 가정의 가치관, 영적 가치관 전쟁에 대해 깨닫는 귀한 교육의 시간이 되었다. 2)한인교회들 뿐 아니라 다민족 교회들까지 함께 연합하고, 동지여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3)유권자 등록자가 더 많이 생겼다. 유권자 등록은 2012년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11월에 있는 선거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통령이 뽑히도록 꼭 기도하며 투표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권과 오바마 대통령은 너무나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며, 낙태 또한 크게 지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슬람과 그 종교에 아주 매우 우호적이다. 또한 그들의 많은 자금이 정치 자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적 전쟁, “가치관 전쟁”은 계속 된다. 이제는 동성애뿐 아니라 “성전환자” “남녀 구별하지 않는” 너무 많은 말도 안되는 성적 혼돈을 가지고 오는 수많은 법안들로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더 짙은 어두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PRE, Class Act의 서명운동에서 끝나지 않는다. 서명운동으로만 만족해서도 안된다.

우리의 전쟁은 예배소서 6장에서 말씀하듯이 육신의 싸움이 아닌 치열한 보이지 않는 영적싸움 이기에 문화와 정치, 또는 인권(Human Rights)이라는 화려한 가면을 쓰고 슬며시 우리 가정과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에 맞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전략만으로 싸우며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백성들은 계속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지금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 거기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저희 TVNEXT.org(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은 한인사회와 저희들의 가장 소중한 신앙과 가치관을 지키고 그 신앙을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까지 전달하고 일깨워 줄 수 있는 다지역할을 계속 기쁘게 감당할 것이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후원 또한 부탁드립니다.

▲연락처:tvnext.org@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 화 령 목 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신실하신 하나님 (시89:1-13) 찬447장

그리스도인은 에단이 노래하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실 곧, 진실은 하나님 성품의 본질이며 기초입니다. 에단은 하나님의 성실의 정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첫째, 그것은 찬송의 주제였습니다(1, 5). 하나님을 노래하며 대대로 전파함은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역시 언제나 신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녹보석같은 보좌의 모습은 바로 이 신실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둘째, 만물을 붙드는 능력이었습니다(2). 시인은 성실로 창조된

세상을 유지되는 것도 그의 성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통해 우리는 그의 사랑과 진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신실한 말씀만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셋째, 성실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8). 파도의 일어남과 잔잔케하시므로 비유된 원수의 요란한 활동도 마침내 그의 신실하심에 의해 다스려짐을 본 것입니다.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느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화 거룩하신 하나님 (사6:1-3) 찬387장

이사야가 본 이상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냈습니다. 열린 하늘을 향해 그가 본 보좌에 계신 분의 특성이 거룩이었음을 무엇이 증거합니까? 첫째, 스랍이 부른 찬양의 주제가 거룩이었습니다. 스랍이 자기 몸을 가리는 태도와 보좌에 계신 분을 향한 거룩 찬양은 그의 거룩성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조물이 뛰어나고 아름다워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며 특히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일지라도 그의 거룩에 결코 미칠 수 없습니다. 둘째, 자신의 불결을 발견했기 때

문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보자 자기의 부정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은 정결 도구인 불(레10:19)로 그의 부정을 순식간에 제해 깨끗케 하셨습니다. 셋째, 자신의 일에 거룩한 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자에게 맡기심은 그 사역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굳게 신뢰합니다.

수 그 나라를 세우려면 (대상11:10-47) 찬366장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윗왕권을 세우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오병이어로 기이한 역사를 일으키듯이 현재 있는 그 재료를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본문은 그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하나님나라에 대한 사모심을 갖게 하십니다(17). 다윗이 베들레헴 샘물을 사모하는 마음처럼 하나님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구하는 영위에 세워집니다. 둘째, 용사들의 목숨내건 헌신을 통해 세워집니다(19). 다윗을 옹위한 용사들

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을 뚫고 물을 가져온 그 뜨거운 마음이 그 나라를 세웁니다. 셋째, 하나님 중심한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18). 역시 그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처럼 하나님 앞에 전제처럼 부어질 때 세워집니다. 먹이나 마시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바친 산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나라는 세워집니다. 그 방법을 따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나라를 세웁시다.

목 강성한 구원 (대상11:1-9) 찬493장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참된 강성이 무엇임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강성해집니다(3).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뤄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주권자가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절대권위이고 능력의 근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우심으로 강해졌습니다(9). 다윗왕권은 한번에 강해지기보다 점점 강해갔습니다. 마귀는 기적을 통해 일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일하심으로

그 풍성한 은혜에 깊이 참여하게 하시는 길을 기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로 강해집니다(9). 법적으로 복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실제로 임하심으로 일하십니다. 구약에도 그의 임재로 일하신 하나님은 신약에는 더 구체적이고 풍성하심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된 자리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됨은 성령의 임재로 현실화 됩니다.

금 그리스도의 고난의 효능 (시22:22-31) 찬144장

메시아의 수난 시편으로 알려진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효능을 발견합니다. 첫째,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22-23). 많은 고난을 당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한 본 시편은 그리스도 고난의 그림자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허물과 죄와 연단을 위한 고난이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당하는 고난으로 풍성한 죄사함을 인한 구원과 찬송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기에 영원히 그를 찬송

합니다(엡1:7). 둘째, 영생을 누리게 했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영원한 마음의 찬송을 주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풍성한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 있는 영생은 하나님을 영원히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요17:3). 셋째, 만민에게 외침 메시지를 받았습니

토 교만의 결과 (사10:5-15) 찬205장

앗수르의 심판을 통해 교만에 대한 심판의 처절함을 본문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그렇게 세력있는 앳수르가 망한 것은 외적 침략이나 정치적 결함보다 그들 속에 자리잡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한 그들은 결국 불태움을 당했습니다. 둘째, 일시적으로 쓰임받은 심판입니다.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를 때리는 채적으로 쓰임받은 그들이 망한 이유는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개별적입니다. 셋째, 겸손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 바른 교훈에 마음을 두고(딤후6:3)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바라본 신자의 자연히 겸손한 종의 마음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채워진 우리 시대를 이기는 길은 바로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교만을 조장하는 유혹이 많은 세상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갑시다.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향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물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예배(행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집회초대, 집회기도, 목회기도, 헌금기도, 위약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예배(행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위한 예배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 수요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행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다워포인트 중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치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물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일 제공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와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lian.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 (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어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해택**

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해택**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부설(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에세이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kcdc.net
이 메 일 - kcdc@chollian.net

전화 - (02) 824-5004
팩스 - (02) 824-4231-4232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685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FOR GAPCK
CENTENNIAL OF GRACE, TO THE LIGHT! TO THE FUTURE!



1912~2012



총회설립100주년 기념 해외선교대회

- 기간 : 5.29 (화)~31(목)
- 장소 : LA 나성열린문교회

우리의 모 교단(대한 예수교 장로회)이 교단 설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기념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LA에서 '해외선교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뜻 깊은 행사에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함께 하셔서 장차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계기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총회설립100주년기념 해외선교대회 공동대회장 박헌성 목사

참가 대상

대한예수교장로회 관련 모든 분들
목회자 선교사 장로 평신도 (미주대표 120명)

등록 방법

이메일 : sshan32@gmail.com
전화 : 714.504.4257, 홈페이지 이용 등록

참가 등록

\$50 (20일 등록마감)
호텔, 식사, 버스, 기념품 제공

기타 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이용
cafe.daum.net/mission-100

총회설립100주년기념 해외선교대회 조직

고문 길자연 장영춘 윤종호 고응보 김득룡 김혜성 김상규 이희봉 정고영 윤성원 김윤배 김수학 김승곤 박영창 이성락 장익 지도위원 김성길 문성록 김경진 이용걸 김만풍
김남수 정인량 최인근 강영석 김용 황은영 정완기 박기호 이정현 이인승 나광삼 이영희 정창수 문석호 명화영 대회장 하귀호 박헌성 부대회장 박무용 박기태 김철직 조진모
이창우 김동욱 김재열 김광삼 광건섭 최승찬 권섭 박기태 손원배 홍지선 최동진 원종훈 나성균 정명섭 김경식 조문희 김풍운 윤상철 최기정 윤형복 임권택 신다니엘 서기 최인모
조재형 부서기 김형국 정우성 회계 김권중 지윤성 부회계 함중수 광부환 회록서기 문상무 윤태근 부회록서기 김찬곤 서오석 총무 옥성석 서종운 이준우
남성수 문상면 정수일 김성득 함상근 정재훈 이규섭 오요셉 최해근 권혁천 준비위원장 한성수 준비위원총무 이남중 기획위원장 이성우 진행위원장 양경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설립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